



지면안내

2 졸업 준비금을 둘러싼 갈등 3 학교 홈페이지 새단장 4 <심층> 올해로 4년째, 학습포드폴리오 반응 '글쎄' 6~7 <기획> 노숙인 자립 선언, 빅이슈 이야기



사진:홍보실 제공

故허세욱 교수 강의실 동판 제막식 열려

이번 달 3일(목) 오후 5시 서울배움터 인문과학관 203호에서 故허세욱 중국어과 초빙교수(중국어과 54학번) 강의실 동판 제막식이 거행됐다. 제막식은 △개회사 및 참석자 소개 △동판 제막 △허세욱 교수 약력보고 △축사 △답사 △감사패 및 기념품 증정 △기념영상 상영의 순서로 꾸러졌으며 김태성 중국학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축사를 통해 김인철 대외부총장은 “허세욱 교수님은 우리 학교 1회 졸업생으로서 학교 역사의 산증인이시며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존경 받는 시인으로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는 분”이라며 “퇴임 이후에도 고액의 학과 발전기금을 기탁하시는 등 학교와 후학들을 위해 보여주신 끊임없는 헌신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학교의 발전과 후학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다짐을 드러냈다.

조인우 기자 82pressman@hufs.ac.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으로 박철 총장 취임

이번 달 1일(화)에 우리 대학 박철 총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17대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취임에 앞서 박철 총장은 1월 21일(금)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총장지원 기구 중 하나인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총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임됐다. 사총협 회장을 맡으면 자동으로 대교협의 부회장직을 맡게 되는 원칙에 따라 박철 총장은 사총협 회장직과 동시에 대교협 부회장까지 맡게 됐다.

한편, 1982년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총 202개의 전국 4년제 대학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대학 간 상호협력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교협 부회장직과 사총협 회장직의 임기는 모두 다음 해 4월까지다.

이제용 기자 83hearing@hufs.ac.kr



▲ 2013년 3월에 완공 될 글로벌캠퍼스 다목적관은 총 11층으로 약 6,500평 크기이다.

글로벌캠퍼스에 다목적관 건립 확정 총 11층 규모...학생들 기대감 드러내

글로벌캠퍼스에 다목적관이 건립된다. 공사는 이번 해 12월부터 시작돼 2013년 3월에 완공 될 예정이다. 다목적관은 공과대학(이하 공대) 맞은 편 대운동장 동쪽에 연면적 약 6,500평의 크기로 지어진다. 총 11층으로 △지하 1층 △지상부 3-5층 △타워부 11층으로 구성된다. 다목적관은 △교육 공간 △전자 열람 공간 △연구 공간 △복지 공간 △컨퍼런스 및 체육관 △행정 공간 등으로 사용된다.

다목적관은 글로벌캠퍼스에서 문제가 됐던 공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학제개편과 강의실화 등에 따라 강좌 수가 증가해 그동안 강의실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특히 단과대 특성상 실험 실습실과 연구실이 필수인 자연대나 공대는 공간부족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현재 자연대의 경우 공대 강의실 일부를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건(자연·환경 06)자연대 학생회장은 “현재 자연대 건물에서 학생이 쓸 수 있는 공간은 1층뿐인 상황이라 다목적관 건립 소식에 많은 학생들이 좋아할 것”이라며 소감을 말했다. 덧붙여 “완공 이후 다목적관 사용에 관해 학생들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외에도 학교 측은 다목적관 건립을 통해 △연구실 부족 해결 △양 배움터 균형발전 추진동력 마련 △글로벌캠퍼스 친환경 랜드마크형성 △Inbound-Globalization 실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도 다목적관 건립 소식에 많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학생들은 다목적관의 용도와 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박민선(어문·인도어 10)양은 “서울배움터에 비해 다양한 시설이 부족했던



▲ 글로벌캠퍼스에 건립될 다목적관 중앙홀 상상도

글로벌캠퍼스에 다목적관이 건립된다는 소식을 들어 매우 좋다”고 소감을 말했다. 주현정(경상·국제경영 08)양은 “학생들의 복지 공간이 늘어나 매우 반갑다”며 “학교가 나날이 발전해 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송영아(어문·그불어 10)양은 “강의실이 늘어나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물과 건물사이가 멀어 이동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우려도 함께 나타났다. 김기정(어문·아프리카어 09) 글로벌캠퍼스 학생회장은 “다목적관 건립은 총학생회 핵심사업 중 하나”라며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되지 않도록 학교와 함께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담당자인 김철승 기획건설팀장은 “다목적관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질 것이며 글로벌캠퍼스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82yujin@hufs.ac.kr

국제지역 법률 전문가들의 배움터 법학전문대학원 우수대학원으로 선정돼

우리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난 달 25일(금)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선정한 우수 대학원에 선정됐다. 이번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에 시행될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스스로가 점검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다.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국제지역 전문 법조인 양성’을 특성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국내외적 법률 서비스를 교육함으로써 글로벌화 된 법조인을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국제지역 전문 법조인의 배움터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런 목표와 운영 방식을 지향하는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동남아법 △러시아법 △미국법 △일본법 △중국법 △중남미법 △중동법 △EU법 등 8개 권역의 지역법을 다양하게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돼 이번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평가위원회의 우수 운영대학원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박영복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전 세계가 지구촌화 과정을 겪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간 무역마찰 등의 국제 분쟁도 많이 겪고 있는 만큼 지금 같은 상황에 맞는 법학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대학원의 목표”라며 “구체화된 목표 설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우수대학원 선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 매우 즐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이렇게 즐거운 일에 우리 학생들이 모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인우 기자 82pressman@hufs.ac.kr

노어과, 신입생 사전증정식 가져



노어과 제공

▲ 지난 달 20일(일) 서울배움터 사회과학관 301호에서 새내기 강희경(서양어·노어 11)학생이 노어과 총동문회장에게 노-한사전과 한-노사전을 받고 있다.

외대학보 84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외대학보사에서는 사실을 넘어 진실을 추구할

열정 있는 외대학보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외대학보사 학생기자실에서 지원서를 수령해 제출해 주십시오.

모집기간 : 2011년 3월 7일(월) ~ 5월 4일(수)

모집 대상 : 양 배움터 10, 11학번

지원서 마감일 : 5월 4일(수)

필기시험 및 면접일 : 5월 7일(토)

합격자 발표일 : 5월 8일(일)

(기자실) ▶서울 신학성회관 401호 02-2173-2504 ▶용인 학생회관 212호 031-330-4112
▶문의사항 연락처 : 이해영 편집장 010-6844-0369 (통번역·독일어 08)



빈 의자

‘빨리빨리’가 만든 사회악 콤비네이션

▲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젊은 청년의 꿈을 너무 빨리 앗아가 버렸다. 지난 달 13일(일) 대학 입학을 앞두고 피자 배달 일을 하던 한 청년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 후 ‘30분 배달’을 내세웠던 피자 업체에 비난이 쏟아졌고, 이에 해당 업체는 ‘30분 배달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아이러니하다. 이효리가 맘에 드는 상대를 십분 안에 얻을 수 있다고 노래하는 대한민국에서 ‘30분 배달제 폐지’는 20년이 걸렸다.

▲ 도로를 질주하는 피자 오토바이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한 판이라도 더 팔고 싶지만 한 명이라도 덜 고용하고 싶은 업주의 과욕, 딱 30분까지가 인내심의 한계인 소비자, 이에 장단을 맞춰 초 단위로 배달 시간을 알려주는 업체의 상술. 이 모든 것들이 콤비네이션 피자처럼 어우러져 배달 오토바이에 실린다. 이토록 서글픈 오토바이는 ‘빨리빨리’가 하나의 미덕처럼 자리 잡혀버린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 날고뛰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이 빠른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요즘 말로 ‘루저’가 되는 패속비행의 세상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속도와 경쟁’을 지상과제로 여긴 채

삶과 노동의 질은 한켠에 제쳐두고 앞만 보고 달리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조금씩이 주먹구구식의 대중대충병과 결합해 많은 재앙을 불러온다. 우리는 90년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를 겪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사고율과 안전사고율, 빨리빨리와 성과만능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다.

▲ 기본을 소홀히 하고 절차를 무시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빠르면서도 ‘절제하고 빈틈없는 부지런함’,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프로정신’이 더해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 독이 되고 있는 적당주의와 성과만능주의를 불식할 수 있도록 빠진 너트들을 찾아 다시 조이는 전반적인 사회시스템 정비에 요망되는 시점이다.

▲ 피자 배달 청년의 억울한 죽음에는 분명 여러 당사자들의 지문이 묻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반성한 당사자는, 그것도 사건 직후가 아니라 사건 뒤 여러 날짜가 지나면서 알력에 못이겨 반성한 당사자는 딱 하나, 피자 업체뿐이다. 나머지 당사자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태연하다. 무서운 사회다.

편집장

학내 브리핑

봄 학기 특강 접수받습니다

서울배움터 학생복지위원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봄 학기 교육 특강 접수를 받는다. 개설되는 특강은 △영어 특강 △한자 특강 △컴퓨터 특강 △온라인 공무원 강의다. 각 과목마다 접수 기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이번 달 내로 접수가 종료된다.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은 개별 과목 접수처에 찾아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과목 △접수처 △강의 기간과 일정 △수강료 등의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위원회 홈페이지나 발송된 개인 메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금연으로 건강관리하세요!

서울배움터 보건진료소에서 교직원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시행한다. 이번 달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진행될 이 프로그램은 처음 6주간은 금연 방법을 제시해주고 이후 6개월 동안에는 개인별로 관리를 해줄 예정이다. 금연클리닉에서는 △체내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행동수정요법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장학금 추가 신청은 2일부터!

이번 달 2일(수)부터 25일(금)까지 이번 학기 등록자를 대상으로 교내의 △면학장학금 △가족장학금 △외국인장학금 △FLEX(영어)장학금 추가신청을 받는다. 단, 장학금 추가 신청은 장학금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이번 학기를 포함해 8학기 이하 등록자에 한해 가능하다. 또 장학금 종류에 따라 장학 대상자에게는 성적자격요건과 해당자 자격요건이 추가로 적용된다. 장학금 추가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장학금 신청서 및 해당자 증빙서류를 ‘학생감동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편입생 학생증 발급 서두르세요

이번 달 14일(월)부터 15일(화)까지 양 배움터 신·편입생들은 학생증 발급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학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 서울배움터 학생들은 교수회관 1층에 위치한 우리은행에,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은 후생복지관 1층에 위치한 우리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증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ID카드신청서 △uni 체크카드 및 uni우리V체크카드 신청서 △거래신청서 각 1부 △신분증 사본 2부를 준비해 가면 된다.

졸업준비금을 둘러싼 잡음
미숙한 행정처리가 원인

지난 달 24일(목) 양 배움터에서 2011학년도 동계 졸업식이 열렸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2051명의 학생들이 대학교를 떠나 사회로 첫발을 내딛었다. 학사도 부족, 치수가 맞지 않는 졸업가운 대여 등 졸업식과 관련한 미숙한 행정으로 학생들의 큰 반발을 샀던 지난해 하계 졸업식과는 달리 이번 졸업식은 행정처리 부분에서는 큰 문제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졸업 준비금(이하 졸준금) 환불이 늦어지고 있어서 졸업생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졸준금 환불은 졸준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앨범 사진을 찍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우리학교 포털사이트 휴스라이프와 총학생회 홈페이지에서는 졸준금 환불을 독촉하는 졸업생들의 글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졸준금 환불지연, 왜?

졸준금 환불이 늦어지는 이유는 졸준금과 관련해 자체적인 절차가 낡기 때문이다. 졸업 사업은 졸업 대상자들이 졸준금을 내고, 그 돈으로 앨범 및 기념품 제작과 가운 대여 및 기타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졸준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졸준금 환불 대상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고스란히 통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졸준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졸준금을 통한 졸업 사업이 위의 방식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졸업생들에게 환불해 줄 돈이 부족하면 차기 졸업 대상자들이 낸 졸준금을 환불에 이용해 왔다. 차기 졸업 대상자들의 앨범을 계약하는 데 사용해야 할 금액으로 당기 졸업생들에게 졸준금을 환불해주고, 차기 졸업자들은 또 그 다음 졸업자들의 졸준금으로 앨범을 계약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하지만 이번 학기부터 졸준금을 폐지하면서 현재 대학본부 명의의 졸준금 관리 통장에는 졸업생들에게 환불해 줄 잔액이 부족한 상태다.

졸준금 적자의 원인으로는 가장 먼저 수년간 이어져온 방만한하고 미숙한 행정처리에 있다. 지금까지 졸업생들이 수령해가지 않은 졸업앨범이 학교에 많이 남아있는 상태

인데, 이를 통해 그 동안 졸업 인원 수 대비 과다하게 앨범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졸준금을 내지 않고 졸업사진을 찍고 졸업앨범도 수령해가지 않은 사람도 많다.

적자의 또 다른 이유는 각 배움터를 이동하며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들이다. 복수전공을 하기 위해 배움터를 이동하는 경우 원래 배움터와 복수전공을 하는 배움터에서 각각 졸업앨범을 찍게 된다. 하지만 졸준금 관리는 학교에서 양 배움터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배움터에서 졸준금을 납부하면 복수전공을 하는 배움터에서 졸업앨범을 찍을 때는 졸준금을 내지 않아도 낸 것으로 처리가 된다.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한 번 졸준금을 낸 것으로 두 번 졸업앨범을 촬영하게 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 하는 것이다.

◆졸준금 문제, 대책마련이 시급

졸준금 환불과 향후 졸업사업에 대해 박원(상경·국통 04)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지금까지의 악순환을 끊고 앞으로의 정상적인 졸업 사업을 위해서 한 해는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기 졸업자들에게 졸준금을 환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 측에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이 방법을 통해서 환불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졸업준비 위원회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과 졸준금 현장납부금액, 총학생회 교비를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졸준금 환불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졸업한 학우들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졸업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측의 대책에 대해 전학선 학생복지처장은 “아직 자세한 사항은 듣지 못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원을 요청한다면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지만, 졸준금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학생 자치의 의미가 흐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조인우 기자 82pressman@hufs.ac.kr

양 배움터 동아리 박람회 구경 오세요
다채로운 행사 다양한 상품 준비

◆서울배움터, 장소는 좁아
저도 준비는 철저히

서울배움터의 동아리 박람회가 이번 달 15일(화), 16일(수) 이틀에 걸쳐 열린다. 국제학사 앞부터 도서관 앞쪽 길에 동아리 박람회를 위한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동아리 박람회는 아침 9시부터 준비를 시작해 오전 11시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오후 5시에 막을 내린다.

이번 동아리 박람회는 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학교 현장 사정상 공간이 지난 해 보다 좁아져 부득이하게 도서관과 사회과학관 앞쪽에서 진행하게 됐다. 이에 동아리 연합회는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난 해 진행했던 ‘게릴라 콘서트’를 없앴다. 그 대신 동아리 연합회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동아리 박람회를 준비한 안현준(경영·경영 08) 동아리 연합회장은 “새내기를 비롯한 학생들이 동아리 박람회를 통해 대학교에 와서 학업 외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자발적으로 찾아보면서 스스로 발전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글로벌캠퍼스, 무점한 상품 준비해

글로벌캠퍼스의 동아리 박람회는 이번 달 22일(화)에 학생회관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참가 동아리들은 지난주에 신청을 마쳤고 교내 대부분의 동아리가 참가 할 계획이다.

지난해 글로벌캠퍼스의 동아리 박람회는 날씨가 좋지 못해 애초 예정된 날씨에 열리지 못하고 4월 말 다른 행사와 함께 진행해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했다. 하지만 이번 동아리 박람회는 아이패드, 플라로이드 등의 고가 전자제품의 상품이 준비돼 있고 지난해보다 흥미로운 게임들을 준비해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캠퍼스 동아리 박람회를 기획한 김원석(자연·정보통계 08) 동아리 연합회장은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개인이 소질 있는 분야의 동아리에 지원해서 활동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상아·신혜지 기자
82seosanga@hufs.ac.kr

‘이덕선 장학금’ 수여식 거행

이번 달 4일(금) 오후 6시 서울배움터 대학본부 이덕선 회의실 (203호)에서 이덕선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전학



선 서울배움터 학생복지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2011학년도 1학기에는 시작으로 장학생 6명(서울배움터 3명, 글로벌캠퍼스 3명)이 선발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덕선 회장이 직접 참석해 수혜학생에게 축하의 인사와 함께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덕선 회장은 우리학교에 발전기금 총 130만

불을 기탁하였으며, 그 중 100만 불이 장학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번 장학금수여식에는 박철 총장을 비롯하여 이덕선 회장, 김인철 대외부총장, 임경자 영어대학동문회장, 이덕선 회장의 58학번 동기들이 참석해 축하의 자리를 함께했다.

조인우 기자
82pressman@hufs.ac.kr

"외대의 역사를 찾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민속박물관과 산하 역사기록관은 2011년도 외대 역사전시관 개관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개교시기부터 현재까지 학교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아름답게 발전한 외대의 발자취를 정겨운 추억과 향수의 샘으로 담아내고자 동문들의 소중한 기록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외대 구성원의 흔적이 담긴 기록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역사기록관에 기증하신 귀하의 기록은 선별 작업을 거쳐 역사전시관에 전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교 역사를 정립하고 공동체문화를 다듬어 가는데 소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외대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수집기록 대학행정기록 : 대학설립 기록, 홍보물/간행물, 중요업무 기록, 회의록 등
- ▶ 교수연구기록 : 연구논문집, 강의/연구노트, 도서출판초고, 학회 자료집 등
- ▶ 직원활동기록 : 직원 연수, 직원 야유회, 노동조합 활동 등
- ▶ 학생활동기록 : 학생회/동아리 활동 기록, 사진앨범, 성적표, 민주화자료 등
- ▶ 대학관련기록 : 대학관련 외부기사, 지역사 관련자료, 공공기관 기록 등

- ▶ 수집대상 개인 : 동문, 교수, 직원, 학부/대학원생 등
단체 : 행정부서, 학생회, 동아리, 연구소, 동문회, 노동조합 등
- ▶ 수집유형 문서류 : 증서, 간행물, 학보, 유인물, 각종 홍보물 등
- ▶ 시청각류 : 사진, 필름, 음반, 테이프, 영상 등
- ▶ 박 물 류 : 뱃지, 기념품, 상패, 현판, 유니폼 등 기타

세계민속박물관 / 역사기록관

자료 접수처 서울캠퍼스 제1교수연구동 601호 Tel : 02)2173-3981

글로벌캠퍼스 세계민속박물관 (도서관 4층) Tel : 031)330-4184



우리학교 홈페이지 새 단장

“깔끔해 보인다” “불편하다” 의견 분분

지난 달 25일(토)을 기준으로 학교 홈페이지가 새로 개편됐다. 지난 2007년 홈페이지 개편이후 약 4년만이다. 전에 있던 홈페이지보다 깔끔해졌다는 의견과 함께 전에 비해 복잡해져 불편하다는 목소리 등 다양한 견해를 보였다.

◆갑작스런 홈페이지 변경에 학생들 당황해

수강신청 기간이 끝나고 개강을 맞이해 오랜만에 홈페이지를 방문한 학생들은 달라진 학교 홈페이지에 당황했다. 임장빈(공과·전자공학 09)군은 “외관상으로 깨끗해지고 간결해진 것 같아 보기 좋지만 사전에 미리 공고가 있었더라면 당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민(동유럽·폴란드어 09)군은 “홈페이지 변경이 수강신청 변경 기간과 겹쳐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에 신왕철 정보통신팀장은 “지난 달

해당 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었다”며 “홈페이지 개편과 수강신청 기간이 불가피하게 겹쳐져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중로그인 “불편해” vs “보안상 필요”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서 종합정보시스템에 들어가려면 로그인 후 화면 하단의 종합정보시스템 코너로 들어가야 한다. 이 때 또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해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김지환(공과·전자공학 10)군은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을 두 번이나 하는 것은 번거롭다”고 말했다.

이에 신왕철 정보통신팀장은 “공용 PC를 사용할 시 학생들이 로그인 후 인터넷을 종료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높다”며 “이중 로그인은 사생활 유출에

대한 보안 차원으로 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점차 익숙해질 것

차민규(공과·디지털정보 04)군은 “지난 홈페이지 같은 경우 지나친 플래시 화면 및 ActiveX 프로그램이 많아 구글, 크롬 등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 프로그램에서 접속하기가 불편했는데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서 다소 개선이 된 것 같다”며 “아직은 불편한 부분이 많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관장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왕철 정보통신팀장 또한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점차 적응이 될 것”이라며 “홈페이지 개편은 학교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신의진 기자
83coldcityman@hufs.ac.kr



▲ 홈페이지 개편 전 메인 화면(위), 홈페이지 개편 후 메인 화면(아래)

입학 정원 조정 등 대학원 새 학칙 공포

이번 달 1일(화) 개정된 대학원 학칙이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포됐다. 학칙 개정 사유에 대해 전략기획팀 측은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제도를 도입해 대학원 전체의 충원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위원회(DAC) 가입 후, 개발대상국을 상대로 한 정부의 공적원조개발(ODA) 활동이 활발해졌고, 이에따라 ODA 전문 인력 양성 필요성이 대두 됐고 국가·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국제지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학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안 제8조 제1항, 제2항) △국제지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10명 증원을 반영함 △정지행정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4명 감원을 반영함 △경영대학원 석사학위과정(주간MBA과정) 입학정원 5명 감원을 반영함 △대학원 배열 순서 확정에 관한 일에 근거하여 특수대학원 배열 순서를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정치행정전문대학원, TESOL 대학원 순으로 배열함 등이 있다.

새로 개정된 학칙은 공포된 이번 달 1일(화)부터 시행되며, 정원조정은 2011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대학원 학칙 전문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에 관해 김현숙 전략기획팀장은 “여러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피력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혜지 기자
82hedy@hufs.ac.kr

놀이방, 편의점 옆 공간으로 확대 이전

무료 인쇄 및 복사는 아직 논의 중

이번 달 14일(월)부터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기존에 총학생회실에 있던 놀이방을 확대이전 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놀이방은 학생회관 1층 편의점 옆 공간으로 옮겨지면서 종합휴게실로 확대된다. 지난 학기까지 운영되던 무료 복사 및 인쇄 실행 여부는 아직 총학생회에서 논의 중이다. 또 종합휴게실에 배치될 편의시설들 역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무료 복사 및 인쇄 실행이 논의 중인 이유에 대해 이서율(경영·경영 07) 집행국장은 “지난해 놀이방 복사·인쇄 요금으로만 2000~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며 “이 정도 금액이면

더욱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료 복사 및 인쇄를 이번 해에도 진행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놀이방 외에도 학생회관 2층에 있던 여학생 휴게실과 수면실 또한 개·보수공사에 들어갔다. 이서율 집행국장은 이에 대해 “수면실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면 바로 여학생들이 잠을 자는 모습이 보였다”며 “사생활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보수공사로 여학생 수면실에는 2층 침대가 놓일 계획이며 수면실과 휴게실 사이에는 문도 놓일 예정이다.

총학생회의 이번 공사에 대해서 최

지수(국제·국제 09)양은 “예전에는 수면실 문이 자주 열려있었다”며 “수면 중에도 밖의 소리가 자주 들렸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수면실 안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어 불편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승화(경영·경영 09)양은 “여학생 휴게실의 난방시설이 좋지 못했고 수면실의 경우에는 침구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며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놀이방은 이번 달 21일(월)까지, 여학생 휴게실과 수면실은 이번 달 13일(일)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이제용 기자
83hearing@hufs.ac.kr

대한민국을 이끄는 1% 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군사관(ROTC) 52기·53기 후보생 모집안내

- ▶ **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인 남·여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52기(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제53기(남자만 해당)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11년 3월 7일 ~ 4월 1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서 접수]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월 9일(토) / 발표 : 4월 29일(금)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 5. 2 ~ 5. 20(3주) / 발표 : 6월 10일(금)
 - 신원조회 : 6월 13일 ~ 8월 19일(10주)
 - 최종합격자 발표 : 8월 25일(목)
- ▶ **문의처** : 학군교 (02)3403-7121~4 / 대학 학군단

학생중앙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심층보도〉

올해로 4년째, 학습포트폴리오 반응은… ‘글썸’

대다수 학생들 ‘이름뿐’이라고 생각해

2008년부터 우리학교 학생들은 ‘학습포트폴리오’로 분류돼있는 강의의 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수업시간과 강의실 그리고 1학점이라는 학점까지 배정된 필수과목이지만 정작 수업이나 면담은 한 학기에 한 번이고작이다.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취지는 좋았지만 정작 학점 낭비가 돼버린 학습포트폴리오, 원인과 대책을 알아보자.

편집자주

◆속 빈 강정 ‘학습 포트폴리오’… 대다수 학생들 ‘불만족’

지난 해 신입생이 된 Y양은 학습포트폴리오로 분류돼 있는 ‘신입생 세미나’ 강의를 신청했다. 담당 교수님과 강의의 2분정도의 면담 한 번으로 1학점짜리 신입생 세미나 강의는 ‘Pass’를 받았다. 하지만 Y양은 면담 한 번이 1학점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학점이 아깝다고 생각했다.

위의 사례는 실제로 한 학생의 신입생 세미나 강의 수강의 이야기다. 하지만 이는 한 학생만의 사례가 아니다. 본보가 이번 달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07명 중 약 31%인 253명이 학습포트폴리오 수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학생은 총 326명으로 약 40%를 차지했다. 반면에 학습포트폴리오 수업에 ‘만족’한다는 학

생은 총 228명으로 약 28%에 불과했다.

◆학습포트폴리오에 대한 학생들의 솔직한 생각

그렇다면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약 46%의 학생들이 ‘수업이나 면담의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아서’를 이유로 꼽았다. 학습포트폴리오 강의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많은 학생들은 학습포트폴리오 강의가 왜 졸업 필수요건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두 번째로는 약 24%의 학생들이 ‘수업이 늦은 시간대에 배정돼 있어서’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학습포트폴리오 수업은 9교시 이후로 잡혀있다. 하지만 장거리 통학자의 경우 9교시 이후에 강의를 듣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다. 세 번

째로 약 12%의 학생들이 ‘수업이 정해진 시간에 매주 이뤄지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학습포트폴리오 강의는 정해진 시간이 아닌 담당 교수와의 면담으로 대체된다. 하지만 그 면담 또한 짧은 시간 내에 이뤄지고 일화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수업이나 면담이 사전 계획 없이 이뤄져서’라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8%를 차지했다. 이은별(통번역·태국어 10)양은 “준비가 부족한 강의는 학생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의견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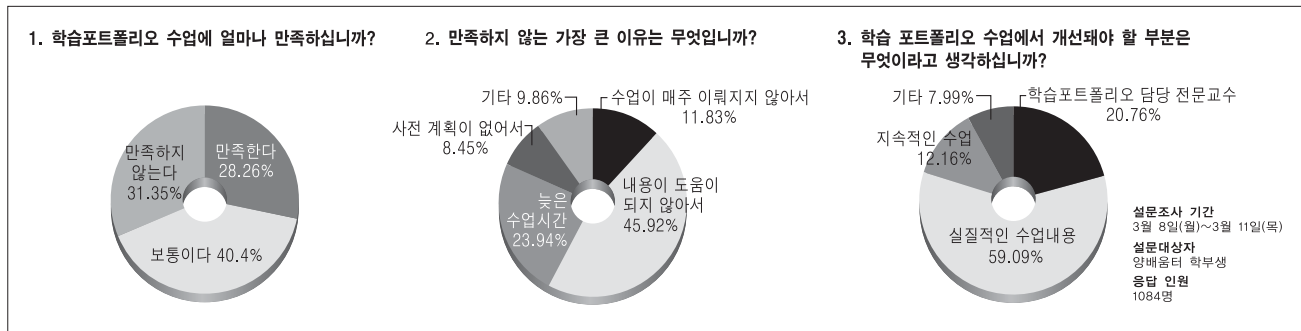
◆학습포트폴리오, 더 이상 학점 낭비는 싫어요!

학습포트폴리오 강의에서 개선 돼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59%의 학생들이 ‘학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

적인 수업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는 학생들이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학습포트폴리오 강의와 면담에 대해 학생들은 ‘전목도로 사용 된다’, ‘인적조사를 하는 것 같다’, ‘취업과 실질적으로 연계성이 없다’ 등 형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성하 교무처장은 “학습포트폴리오의 취지는 강의 이외에 접촉이 없는 교수와 학생 사이가 아닌 교수가 인생과 학문의 멘토가 돼 좀 더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담당 전문 교수는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약 21%의 학생들은 ‘학습포트폴리오 담당 전문교수’의 필요성을 꼽았다. 현재 학습포트폴리오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은 각 학과의 전공 교수들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학생들과의 면담이나

학습포트폴리오 강의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다. 김규훈(통번역·스페인어 08)군은 “학습포트폴리오 담당 교수가 있다면 정해진 시간 외에도 자유롭게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고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진로에도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견을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하 교무처장 “앞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학교의 많은 프로그램과의 접점을 만드는 등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뒤이어 약 12%의 학생들이 ‘지속적인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정지인(공과·디지털정보 10)양은 “담당 교수님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했다.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이성하 교무처장은 “교수들이 다른 많은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업은 힘들다”며 “전문적인 상담은 교내 관련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유진 기자 82yujin@hufs.ac.kr



외국어연수평가원

교육생모집

◆◆◆ 특 혜 ◆◆◆
학점인정(실용외국어-필수) 및 외국어인증(2007학년부터)
또는 영어졸업인증(2006학년까지)
※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10주 야간 회화과정 교육생 모집(86기)

- ◇ 모 집 언 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7개 언어)
- ◇ 교육기간 및 시간
 - 가. 교육기간 : 2011. 4. 18(월) ~ 6. 24(금)/(월,화,목,금:주4일 수업)
 - 나. 교육시간 : 19:40 ~ 21:30
- ◇ 원 서 접 수
 - 가. 기 간 : 2011. 3. 15(화)부터 선착순 접수
 - 나. 접수방법 : 외국어연수평가원 홈페이지(http://flttc.hufs.ac.kr) → 수강신청
- ◇ 교 육 비
 - 일반인 : 594,000원 · 본교생 : 482,000원 · 졸업생 : 481,000
- ◇ 결 제 방 법
 - 현금 및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현금 입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 제일은행 227-20-379008 한국외국어대학교
- ◇ 반 편 성 시 험
 - 일 시 : 2011. 4. 9(토) 오전 10시

외국어연수평가원 2011년도 교육일정표

◇ 정규과정 20주 주간 및 야간과정

학기	구분	교육기간	접수 및 등록기간	반편성 시험	교육시간
하반기	주간 70기	2011. 8. 1(월) ~ 12. 16(금)	2011. 5. 31(화) ~ 6. 14(화)	2011. 6. 18(토) 오전 10시	1. 교육시간 ① 주간 09:30~16:20 ② 야간 18:40~21:30
	야간 74기				2. 교육요일 월요일 ~ 금요일

◇ 10주 야간과정

학기	구분	교육기간	접수 및 등록기간	반편성 시험	교육시간
하반기	87기	2011. 8. 1(월) ~ 10. 7(금)	2011. 6. 21(화) ~ 7. 8(금)	2011. 7. 16(토) 오전 10시	1. 교육시간 19:40~21:30
	88기	2011. 10. 10(월) ~ 12. 16(금)	2011. 9. 6(화) ~ 9. 23(금)	2011. 10. 1(토) 오전 10시	2. 교육요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4일)

◇ FLEX Intensive Course

학기	구분	교육기간	접수 및 등록기간	교육시간
상반기	2회	2011. 4. 25(월) ~ 6. 2(목)	2011. 3. 22(화) ~ 4. 15(금)	1. 교육시간 17:40~20:30
	3회	2011. 7. 4(월) ~ 8. 4(목)	2011. 5. 31(화) ~ 7. 29(금)	2. 교육요일 ① L&R: 화요일, 목요일 ② S&W: 월요일, 수요일 (주2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FOREIGN LANGUAGE TRAINING & TESTING CENT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EL / (02)2173-2523~2524
http://flttc.hufs.ac.kr

복수전공 지원 자격 일부 개정돼

11학번 신·편입생부터 적용

지난 달 21일(월) 학교 측은 복수전공 자격 학점 제한을 평점 2.5에서 3.0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전공 지원 자격은 7학기까지(조기졸업 6학기) 제1전공에서 취득한 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자에게만 주어진다. 개정 사항은 이번 해 입학하는 신·편입생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열람은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학사행정과 관련한 전자규정집 제2장 ‘복수전공 시행규정’을 참조하면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해 손전수 학사종합지원센터 팀장은 “지난 학기까지 유지됐던 2.5라는 제한 학점 자격요건은 지나치게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돼 기존의 자격 요건을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복수전공 제도의 논란은 지난 학기 수강신청 이후에 본격화됐다. 본래 1전공인 서울배움터 학생들과 복수전공을 신청한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이 강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구도를 빚었다. 특히 복수전공자가 많이 몰리는 전공의 경우에는 수강 신청 경쟁률이 더욱 높았

다. 또 지난 학기 복수전공에 관한 대자보가 서울배움터의 게시판에 붙으며 양배움터 학생들의 갈등이 고조됐다.

이에 대해 양 배움터 학생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영학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있는 장호영(통번역·스페인어 06)군은 “같이 수업을 해보니 서울배움터 학생들이 왜 반발하는지 이해가 된다”며 “학점기준을 상향시키는 것은 옳은 처사”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김연정(통번역·영어 07)양은 “기존의 제한 학점은 턱없이 낮았다”고 말했다. 반면 윤재민(상경·정의 07)군은 “서울배움터 학생들에게 복수 전공 이수 시 적용되는 학점에 비해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의 학점이 아직도 낮은 것 같다”며 “제한학점을 더 높여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수(서양어·네덜란드어 05)군은 “서울배움터 학생들은 복수 전공으로 올라오는 글로벌캠퍼스 학생을 때문에 수업조차 듣지 못한다”고 말해 복수전공 제한학점의 상황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혜정·남궁현주 기자 83looking@hufs.ac.kr

가치투자연구회

전국대학생 증권 파생상품 경시대회 장려상 수상

우리학교 글로벌경영대학 소속 가치투자연구회팀은 지난 달 16일(수)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2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전국대학생 증권 파생상품 경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가치투자연구회는 글로벌경영대학의 소학회로, 글로벌경영대학장 박진우 교수의 지도 아래 유성우(일본·일본 03), 김봉기(경영·경영 06), 김민석(상경·경제 05), 박장원(서양어·프랑스어 04) 학생이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이 대회는 한국거래소가 주관하고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주최하고 있으며, 대학생들과 담당 지도교수가 한 팀을 이루어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도교수인 박진우 교수는 “전공을 불문하고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학교 학생들이 도전의식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인우 기자 82pressman@hufs.ac.kr



대한민국 영원한 국보1호, 송례문이 돌아온다

2008년 2월 10일, 국보 1호 송례문에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토지대상 문제에 불만을 품었던 채 모씨(70)가 우발적인 방화를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시민들이 느낀 상실감은 우리사회에서 문화재 보호를 향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송례문 복구에 쓰일 부재를 기부하기도 하고 복구 관람 초기엔 높은 참여율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3년 후 국보1호 송례문이 시민의 품에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복구 과정을 관람하는 기회를 가져봤다.

편집자주

◆ 3년간의 복구, 어떻게 이뤄졌나

화재 직후 송례문은 1,2층의 문루와 육축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즉각 위원회를 수립해 대책을 마련했다. 합동회의 결과 송례문의 ‘국보 1호’ 지위는 유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같은 해 5월 20일 송례문 복구원칙이 발표되면서 송례문은 되살아날 준비를 했다.

먼저 안전하고 세밀한 복구 위해 송례문에 가설 덧집이 씌워졌다. 화재 후에 잔존된 부재들은 ‘기존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 한다’는 복구원칙에 따라 수습됐다. 타 버린 나무 기둥, 기와, 성곽 돌 중 조급이라도 사용 가능한 부분은 전부 경복궁 내의 부재 보관고로 보내졌다. 확보한 부재를 이곳에서 말린 뒤 재사용하기 위해서다. 부족한 목재는 준경묘에 있는 금강 소나무를 벌목하여 마련했다. 선산에서 목재와 돌을 직접 구해다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당시 바닥으로 떨어져 23조각으로 부서졌던 현판은 지석사에 보존돼있던 양녕대군의 서체 탁본을 바탕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 오히려 복원 하던 중 기존 송례문 현판에서 틀린 곳 5군데를 발견했다. 오류의 원인은 박정희 대통령 때 복원이 너무 급하게 진행됐던 탓으로 추정됐다.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통기법을 고수했다. 이를 위해 송례문 성곽 안에 대장간도 지었다. 포전에서 구해온 좋은 바위를 석공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듬는데, 그때 사용할 정을 현장에서 만들기 위해서다.

단순히 기존의 송례문을 복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송례문이 복구되기 전 좌우 성곽과 원래 지반을 회복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현재의 지반에서 1.6m를 더 내려가 확보하면 조선전기 송례문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 송례문을 단순 복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애초의 모습까지 되찾으려는 의도이다.



▲ 쌓여있는 석재 뒤로 보이는 송례문 가설 덧집

◆ 시민들 복구 관람 가능해

시민들은 이러한 복구 과정을 전부 관람할 수 있다. 사전에 ‘송례문 공개관람’ 홈페이지에서 관람을 신청한 뒤 현장에서 출입증을 받으면 비로소 관람이 가능하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단체 두 곳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해 매주 시간대별로 무료 안내를 제공한다. 이에 본 기자는 여러 시간대로 공개 관람에 참여했다.

먼저 출입증을 받아 복구 현장에 들어선 뒤 송례문의 역사와 변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 쪽에선 돌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다. 말 그대로 공개 관람이다. 그런데 40명의 인터넷 예약자와 5명의 현장에 예약자를 받는 현장엔 본 기자와 시민 2명이 참여 인원의 전부일 뿐이었다. 이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 자

원봉사자의 안내가 계속된다. 장소를 이동해 송례문에 지어진 가설 덧집으로 들어섰다. 이곳에서 지붕, 홍예와 문루를 들어내 발가벗겨진 송례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어서 덧집 5층으로 이동한 뒤 영상물을 관람하고 설명장으로 향했다. 설명장에는 송례문의 △변천 △역사 △복구 현황 △시대별 송례문의 모습이 담긴 팸플과 사진 자료들이 즐비했다. 자원봉사자의 설명을 들으며 송례문을 내려다보는 시간을 가진 뒤 건물에서 나와 대장간으로 향했다. 이곳 대장간에서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정을 직접 만들고 있었다. 전통 방식으로 성곽을 복구하기 위해 장인들이 일일이 정으로 바위를 다듬기 때문이다. 제철소의 불가마 2대로 철을 녹여 정을 만드는 장인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다. 정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십 번도 더 철 덩어리를 두드린다는 장인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다른 도구들도 구경했다. 그리고 맨 처음 장소로 돌아와 마지막 설명을 들은 뒤 관람을 마쳤다.

다음 날 본 기자는 관람을 하기 위해 다시 송례문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날 역시 기사를 포함해 2명의 관람자만이 안내를 기다릴 뿐이었다. 이에 자원봉사자는 송례문 복구장 앞을 지나치던 시민 6명에게 호객행위를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시작한지 5분정도 지났을 무렵 설명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뒤로하고 시민 4명이 돌연 관람장을 나가버린다. 약 30분 뒤엔 나머지 2명의 시민도 관심이 없다며 안내중인 자원봉사자를 재촉하기에 이른다. 당황할 만도 하지만 익숙하다는 듯 그 2명의 시민을 점잖게 보내드리는 것으로 송례문의 공개관람은 쓸쓸히 끝났다.

이 날 안내했던 자원봉사자 박병원 씨는 관람객의 수가 공개관람 초창기에 비해 많이 줄었음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끔 있는 행사 때만 수천 명이 몰린다”며 “시민들은 언론 보도가 있을 때에만 반짝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인터뷰 당시 예약 관람자 2명과 호객행위로 6명이 참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민들이 송례문에 무관심 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선산에서 목재와 돌을 구해다 기부했던 시민들을 보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언론의 역할缺이는 시민 자체의 행동은 없다”며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복구과정 공개에 대해 ‘문화재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점, 복구에 전

통기법이 적용된다는 점’이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 대장간에서 복구용 철물을 만드는 모습

◆ 송례문 방화사건, 아픔만 남겼을까

시민단체 서울kyc에서 활동하는 최원명 자원봉사자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안타깝지만 오히려 큰 것을 얻었다고도 생각한다. 우리나라 역사상, 훼손된 문화재의 복구 과정을 이렇게 시민에게 공개 했던 것은 송례문이 최초이기 때문이다”라며 “문화재 관리방법과 복구 경험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송례문이 국보 1호 이상의 가치를 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단 송례문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재에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들은 단순히 넘길 것들이 아니다.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이러한 사고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우발적인 동기가 방화사건으로까지 번진 것은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관심이 소소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관심이 최선의 예방책이며 최고의 대책이라는 것은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사진·글 남궁현주 기자 83.owl@hufs.ac.kr

홈페이지의 경·제·속·속

이성규(국제통상학과 강사)

공공부문 일자리와 보물의 법칙

보물(W. Baumol)은 공공부문의 생산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주목했다. 보물은 다음 두 가지 면에서 공공부문의 생산은 민간부문의 생산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봤다. 첫째, 공공부문의 생산기술이 민간부문의 생산기술에 비해 ‘노동집약적’이라고 봤다. 둘째, 공공부문은 생산유형의 성격상 생산성이 증가될 여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들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공공부문은 생산과정상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원활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공공부문에서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고 싶어도, 노동집약적으로 생산되는 공공부문의 생산특성상 생산요소간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병원과 학교에서 제공되는 의료 및 교육 서비스는 대부분 노동집약적임을 볼 수 있다. 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도 간호사나 교사의 생산성은 획기적으로 증가되지 못한다. 병원의 경우 환자를 돌보기 위해 병원의 최신 시설보다는 기본적으로 간호사와 의사가 더 필요할 것이다. 또 학교의 경우 수업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교사가 있어야 한다.

노동시장을 통해 공공부문의 노동과 민간부문의 노동은 서로 연관돼 있다. 노동시장이 경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공공부문의 노동비용은 민간부문의 노동비용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들 두 부문 간에 노동이 이동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지만 두 부문 간의 임금률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경우 노동의 상대적 비용이 증가한다면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시키기보다 비교적 쉽다. 또 민간부문에

서의 기술진보는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의 증가는 노동에 대한 보수를 증가시킨다. 이것은 민간부문에서 생산요소를 최적으로 사용한 결과이다. 그 결과 민간부문에서는 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물과 같아지게 된다.

반면에 공공부문에서는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임금인상은 ‘공공부문의 비용(임금)인상’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비용이 인상된 상태에서 공공부문의 산출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공공부문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 즉 공공부문의 산출물을 비용인상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공공부문의 지출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를 ‘보물의 법칙(Baumol’s law)’이라 부른다. 보물의 법칙은 공공부문의 규모가 증가되는 현상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도구를 제공한다.

커리어 포트폴리오,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Q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해 3학년이 된 학생입니다. 막상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하니 모르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닌데요.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회사를 살펴보니 커리어포트폴리오를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커리어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커리어 포트폴리오는 아주 쉽게 말해서 자신의 구직 경쟁력을 증명하기 위해 유년 시절부터 경험한 다양한 진로(career) 관련 성취물을 정리한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 △가치 등의 내재된 요인과 △발견가능성 △경쟁적 요건 △조직의 장기 및 단기 목표 등의 외적 요인을 잘 판단해 자신이 바라는 경력목표를 정하는 과정을 ‘경력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른바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

래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런 점에서 바로 자기진단의 필요성이 촉발되는 것입니다. 커리어 포트폴리오의 필요성은 다양하고 세분화된 직업의 세계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직무를 찾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 많은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업 현장에서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경력을 개발해야 하고 이러한 경력개발 과정은 자기계발과 그 길을 같이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신에 대한 탐색은 경력개발의 초석이자 필수적인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개인별 커리어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과거 모습을 함축적으로 살

펴볼 수 있게 해주고 자신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기업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많은 지원자와 자신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면접장에서 시각적 자료로써 면접관을 설득할 수 있는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커리어포트폴리오에 담기는 주된 내용은 △자기분석(나는 누구인가?) △기업 및 직무분석(하고 싶은 일과 흥미 영역) △자신의 보유기술 및 롤 모델(닮고 싶은 인물) △10년~20년 후의 자신의 경력 계획 등입니다.

취업에 관한 궁금증이나 고민을 받습니다. 담당기자 메일(82yujin@hufs.ac.kr)로 보내주세요.



"우리는 일하는 중 입니다"

노숙인 자립 선언, '빅이슈' 이야기

노숙인은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종종 마주치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적어도 수개월은 면도는커녕 씻지도 못한 듯 찌적죄한 외모의 그들은 신문지 몇 장을 이불삼아 길거리에서 살고 있다. 그들도 한때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주역이었지만 지금은 직업도 갈 곳도 없는 우리사회의 대표 아웃사이더가 되고 말았다.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불황이 그들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짐을 떠안고 오늘도 희망 없는 내일을 맞고 있다. 지난 해 여름, 절망을 딛고 미래를 준비하는 노숙인들이 등장했다. '일하는 노숙인'으로 불리는 '빅이슈' 판매원(이하 빅판)들이다. 그들은 '우리는 일하는 중입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노숙인과 행인들의 어색한 첫 만남. 하지만 오늘도 빅판들은 서울시내 곳곳에서 추운 겨울을 희망의 등불로 녹이며 따뜻한 봄을 준비하고 있다. 조금은 특별한 그들과 빅이슈의 이야기. 지금 들어보자.

편집자주



▲ 전세계 38개국에서 발행되는 노숙인 자립 잡지, 빅이슈

겨울, 종로 2가

작년 겨울, 본 기자는 쏟아지는 함박눈을 뚫고 1호선 지하철역을 향해 종종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계속되던 추운 날씨 때문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투를 부여잡고 무심하게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사라져갔다. 가쁜 숨을 돌리기 위해 종로 2가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쉬던 그 때, 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그는 '우리는 일하는 중입니다'라는 팻말과 함께 잡지 한권을 손에 쥐고 있었다. '뭐하는 사람이지?' 잡지의 값은 3,000원. 호기심에 한권을 사들고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대학보 기자 서상아입니다." 그는 조금은 위축된 듯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전철에 올라타고는 방금 산 '소셜 엔터테인먼트 매거진 빅이슈코리아'를 읽기 시작했다. 30여 페이지의 알파한 잡지 표지에는 배우 하정우씨가 모델로 등장했다. 가격표 밑의 '3,000원 가운데 1,600원이 홀리스 판매원에게 돌아갑니다'라는 작은 문구가 눈에 띄었다. 잡지의 내용은 인기 연예인들의 이야기, 국제 뉴스, 그리고 칼럼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빅이슈 판매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 점이 특이했다.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는다는 이 잡지, 도대체 뭘까?



당신이 읽는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한때 노숙인이었던 존 버드와 사업가 고든 로딕에 의해 1991년 영국에서 발행되기 시작한 잡지 '빅이슈'는 노숙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탄생했다. 돈을 기부하는 보통의 자선단체와 달리 빅이슈는 노숙인들을 잡지 판매자로 고용,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빅이슈는 노숙인들이 구걸을 하는 대신 잡지 판매를 통해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립의지를 갖게 돕는다. 영국 내에서는 매주 670,000 명이 읽을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다. 빅이슈는 현재 세계 38개국에서 108종의 '스트리트 페이퍼(노숙인이 판매하는 신문·잡지)'로 발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빅이슈코리아는 해외에서 미

디어나 책에서 직·간접적으로 '빅이슈'를 접한 청년들이 2008년 말 온라인 커뮤니티 '빅이슈코리아 창간 준비 모임'을 만들면서 시작했다. 2009년 10월부터 IMF 외환위기 이후, 이 커뮤니티는 홀리스들의 자립을 지원해온 비영리민간단체 '거리의 천사들'의 단체 내 사업단이 되면서 기업으로서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고, 7월 5일 마침내 창간호를 발행하게 됐다. 자립을 원하는 홀리스가 거리에서 독자들과 직접 교류하며 판매하는 빅이슈코리아는 INSP(세계길거리잡지협회) 36개국 107개 회원과 콘텐츠를 공유해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관계에 목마른 도시인들에게 서로 다른 계층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빅이슈코리아는 매달마다 잡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제9호를 세상에 내놓았다.

'빅이슈'를 만들어 내는 '빅마인드'

빅이슈는 여러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진다. 크게 잡지를 직접 판매하는 △빅판 △빅돔 △사무국직원 △재능기부자 △빅샵 등이 매달 잡지의 발행을 돕고 있다. 빅판은 노숙인 출신으로 사무국의 교육을 받아 빅이슈 판매에 나서게 된다. 이들은 행동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빅판의 수칙 10가지

1. 배정받은 장소에서만 판매합니다
2. 빅이슈 ID카드와 복장을 착용하고 판매합니다
3. 빅판으로 일하는 동안 미소를 지으며 당당하게 고개를 듭니다
4. 술을 마시고 빅이슈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5. 흡연 중 빅이슈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6. 판매 중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리잡습니다
7. 우리 이웃인 길거리 노점상과 다투지 않고 협조합니다
8. 빅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빅이슈만 판매합니다
9. 긴급 상황 시 반드시 빅이슈로 연락합니다
10. 하루 수익의 50%는 저축합니다

빅돔이란 빅이슈 판매사인 도우미를 줄인 말로 빅이슈를 판매하는 빅판을 응원하며 빅이슈를 홍보하는 일을 한다. 사무국 직원들은 빅판을 돕고 매달 잡지를 발행하는 주체다. 재능기부자는 잡지의 콘텐츠를 담당한다. 실제로 빅이슈는 대부분 사진, 글, 그림 등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기부로 만들어져 있다. 빅샵도 빼놓을 수 없는 빅이슈 지원군이다. 빅샵이란 빅판의 물품을 보관해주고 곳은 날씨에는 몸을 피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주는 가게를 지칭한다. 서울에서 8개가 넘는 가게가 빅샵으로 활동하며 빅판을 응원하고 있다.

노숙인의 자립에 관심 있는 당신,
수다회로 오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빅이슈 그리고 노숙인의 자립과 인권증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 수다회에서는 '노숙인은 게으르다' 혹은 '노숙인은 무섭다'라는 일반적인 편견을 깨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그들이 처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해 궁극적인 이해를 돕고, 빅돔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후기를 나누는 등 인간적인 유대를 쌓을 수 있다. 본 기자 2명은 직접 수다회에 참가하기 위해 홍대의 한 카페로 향했다.

시작시간이 아직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날에는 빅돔활동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박효진 영업국 사원이 사전교육을 하는 날이기도 했다. 고등학교 직장인들까지 모두 반짝이는 눈으로 빅판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모습이었다. 최연소 빅돔으로 활동한 17살의 위령서양은 "선홍빛 미소의 김민준 빅판과 춤추는 김수원 빅판이 인상 깊었다"며 "아무리

크게 빅이슈를 외쳐도 귀에 쏙은 이어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진재능 기부자인 오진태군은 "사진으로 빅판과 가까워지고 그분들의 삶을 사진으로 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빅판의 꿈을 전해 듣고 감동 받았다"며 "빅이슈를 만나서 참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편 빅이슈 직원들도 속사정을 털어냈다. 진무두 국장은 "스타들의 일화성 홍보도 좋지만 독자들의 입소문의 실감을 느낀다"며 외국과 달리 일반인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경향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빅돔 혹은 수다회를 통해서 빅이슈를 접하고 사무국에 입사한 직원이 많았는데, 그 중 한명인 이선미 코디네이터는 "저도 여러분들처럼 빅돔을 하던 때가 있었다"며 "현재 즐겁게 일을 하고 있으며 더 많은 독자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 박효진 사원의 빅돔 교육 모습



친구가 되어 다시 만나다

수다회에서 교육으로 빅덤 자격을 갖추게 된 외대학보사 기자 2명은 빅이슈 사무국과 접촉해 일정을 잡았다. 드디어 대망의 빅덤 날. 추위가 한 풀 꺾이고 햇살이 반기는 따뜻한 2월의 평일 오후, 경희대 앞 삼거리로 발걸음을 옮기자 멀리서 반가운 피켓이 눈에 띄었다. “안녕하세요!” 하며 힘차게 건넨 기자들의 인사에 허경식 빅판은 환한 웃음으로 응답했다. 굳은살 베인 손에 갈라진 입술은 그가 겪은 고생의 세월을 대변하는 듯 했다. 그는 한결같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다정히 인사를 건넸다.

기자들도 “안녕하세요, 빅이슈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며 행인들과 눈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심히 제 갈 길을 향했다. 게다가 이어폰을 귀에 꽂고 다니는 사람과 핸드폰을 만지며 가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 건지. 수다회에서 어려움을 털어놓던 빅덤 참가자들이 생각났다. 그 때 한 여성이 다가와서는 이번호를 포함해 지난호까지 찾았다. “어떻게 빅이슈를 접하시고 구매하세요?” 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남자친구가 1호부터 모으는 빅이슈 팬이다”라며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지난호까지 구매한다”고 밝혔다. 또 “저는 보통 종로에서 삽니다”라며 빅이슈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까지 이어진 빅덤 활동은 ‘어떻게 이렇게 매일 서서 일할까’ 하는 생각들이 정도로 힘들었지만, 종종 잡지를 찾아주는 사람들 덕분에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며 비둘기를 쫓아내는 천진한 허경식 빅판의 모습에서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는 노숙인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 날 빅판 그리고 기자들과 눈인사를 건넨 사람들이 다음에는 꼭 빅이슈를 찾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일정을 마무리 했다.



사진 서상아 기자

편견을 넘어 자립으로

허경식 빅판과 함께한 하루를 마치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지하철 입구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노숙인들을 만났다. 이들은 지저분한 외모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찍혀 있다. 지난 2005년 송례문 방화사건 당시 경찰은 목격자들이 “노숙자 차림의 사람이 송례문에 올라갔다”는 증언을 근거로 서울역 인근 노숙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실제 송례문에 불을 지른 사람은 채모씨(70)였다. 노숙인 다시 서기 지원센터 임영인 소장은 “노숙인을 ‘위험한 사람’ 혹은 ‘범죄자’로 보는 시각은 편견이며, 이런 편견이 노숙인들의 재사회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인을 대상으로 일반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폭력 △살인 △장기매매 △명의를 도용한 카드 대출사기 등과 같은 중범죄인 경우가 훨씬 많다. 지난해에는 노숙자나 저소득층을 상대로 부정대출을 해수십 억대 빚을 떠넘긴 사기단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보다 몇 해 전에는 중학생이 노숙자를 따리고 도망가는 동영상 이 인터넷에서 급속히 확산돼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영국에서는 15세 소년 두 명이 노숙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특히 소수에 속하는 여성 노숙자의 경우 성범죄까지 겹쳐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전국 각지의 노숙자 쉼터에서 집계된 여성 노숙자 수는 233명으로 지난해 178명에 비해 31%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노숙자들의 경우 다수를 차지하는 노숙 남성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성폭력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고 생계형 성 매매의 유혹도 적지 않다. 대개 여성 노숙자는 △술집 △다방 △식당 등 집이 아닌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하는 여성도 잠재적인 노숙자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수치로 나타난 여성 노숙자보다 훨씬 많은 수의 여성 노숙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긴 긴 겨울을 지낸 나무는 새싹을 하나하나 내밀지 않는다. 말라있던 나뭇가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초록 잎을 가득 내어놓고 봄을 맞이한다. 노숙인의 자활을 돕는 빅이슈의 행보는 이제 시작이다.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그리고 전국에서 빅이슈를 구매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자활을 원하는 마른 나뭇가지, 노숙인들이 있는 한 빅이슈의 푸른 행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상아·남궁현주 기자 82seosanga@hufs.ac.kr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노숙인 규모 추이

구분	집터	거리	계
2000	4,601	445	5,046
2001	4,321	517	4,838
2002	3,569	670	4,239
2003	3,612	928	4,540
2004	3,497	969	4,466
2005	3,763	959	4,722
2006	3,563	1,293	4,856
2007	3,363	1,181	4,544
2008	3,479	1,317	4,796
2009	3,404	1,260	4,664
2010.1	3,470	1,197	4,667

자료: 남기철(200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0.6.4)

▲해가 거듭될수록 거리에 내몰리고 있는 노숙인들의 상황

외대학보 기자들이 묻고 허경식 빅판이 답하다!

Q. 여기서 빅판으로 활동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A. 남부터미널에서 이를 동안 교육 받은 후 이 자리에서 한지 한 달쯤 됐어요. 얼마 안돼서 팬은 없어요. 이젠 눈빛만 봐도 누가 사갈건지 압니다. (하하) 웃고 지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와요.

Q. 어느 시간대에 빅이슈가 가장 잘 팔리나요?

A. 점심시간인 12시에서 1시 그리고 저녁시간인 5시에서 7시에 잘 팔려요.

Q. 나이 드신 분들은 쳐다보기만 하고 잘 사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로 어느 연령층이 빅이슈를 찾나요?

A. 앞의 우리은행 직원들은 책 바뀔 때마다 사가요. 하지만 보통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더 많이 사가요. 70%정도?

Q. 주말에는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A. 저는 일한 지 얼마 안돼서 토요일도 나와서 일해요. 날씨가 풀려서 일할 만 합니다. 그 외에는 친구도 만나러 다니고 휴식을 취해요.

Q. 저희 이전에도 빅덤이 있었나요?

A. 3명이 왔었어요. 도와주면 더 잘 팔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와줘서 이상하게 안 팔리는 시간에도 팔리고 좋네요. (하하)

Q. (파지 줘는 할아버지와 인사하는 빅판을 보며) 동네 주민들과도 친분을 쌓으셨나요?

A. 저도 예전에 파지를 주웠지요. 청량리에서 석계까지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다녔어요. 저 할아버지가 우유를 가져다 줘서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생활이 훨씬 낫죠. 노숙하던 시절이 죽은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저는 산사람이에요. 노숙 할 때는 몇 시간 씩 밥 기다려서 먹고 ... 지금은 제가 벌어서 먹는 것에 큰 보람을 느껴요.

나도 빅덤이 되고싶다면?

기자들과 같이 빅덤이 되고싶다면? 빅이슈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사전교육은 필수이며 자원봉사 인증서도 발급 가능하다. 기본 좋은 응원! 돈으로 살 수 없는 감동! 마음 따뜻한 실천! 빅판의 옆에서 친구가 되어보자. 빅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빅이슈코리아 홈페이지
bigissuekr.tistory.com/162

아직도 빅이슈가 궁금하다고?
사무실을 찾아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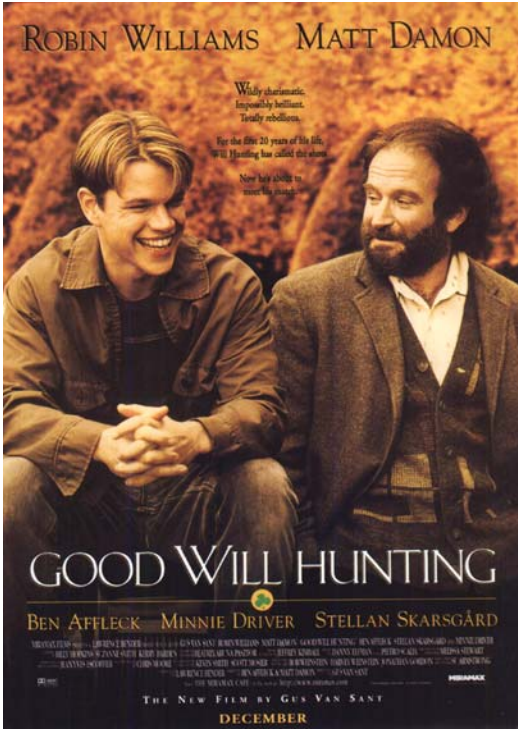


대표 전화번호: 02-766-1115
영업국 전화번호: 02-2069-1135
팩 스: 02-711-1125
이메일: info@bigissue.kr
독자참여 이메일: dokja@bigissue.kr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86번지 2층
(우)150-800

빅이슈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지하철호선	판매장소(역)	출구(위치)
1 / 7	가산디지털단지	5번
1	종각	12번
1 / 중앙	회기	1번
2	강남	6번
2 / 7	경대입구	2번
2 / 3	교대	1번
2 / 9	당산	1번
2 / 4	사당	3.6번
2	서울대입구	2.3번
2	신촌	3번
2	역삼	1.4번
2	을지로입구	6번
2	이대	3번
2 / 8	잠실	8번
2	한양대	1번
2 / 공항	홍대입구	8번
2 / 6	합정	2번
2 / 분당	선릉	1번
3	신사	4.8번
3 / 7 / 9	고속버스터미널	8번
4	성신여대입구	1번
4	숙대입구	10번
4	혜화	4번
4	수유	3번
4 / 7	이수	1번
5 / 6	공덕	1.5번
5	광화문	6번
6	안암	2번
6	월곡	3번
7	송실대입구	3번
9	신논현	6번
9	흑석	3번

세상의 중심에서 외국어를 외치다



한 여인의 천사가 되어
사랑을 지키는 것이 어떤 건지 넌 몰라.
그 사랑은 어떤 역경도, 암조차 이겨내지.

진정한 상실감이 어떤 건지 넌 몰라.
타인을 네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 느끼는
거니까.

You don't know what it's like to be her
angel to have that love for her be there
forever.
Through anything. Through cancer.

You don't know about real loss
cause that only occurs when you love
something more than you love yourself.

<스페인어>

creo que no sabes cual es la forma de proteger el amor,
그레오 께 노 사베스 cual 에스 라 forma 데 보호레르 엘 amor,
siendo el angel de una mujer.
시엔도 엘 안헬 데 우나 무헤르
Ese amor puede superar todas las adversidades,
에세 아모르 부에데 수베라르 토다스 라스 아드베르시다데스,
incluso el cancel.
인클루소 엘 칸셀
No sabes cual es el verdadero sentimiento
노 사베스 cual 에스 엘 베르다데로 센티미엔토
de perdida.
데 페르디다.
Es que puedes sentirlo cuando ames
에스 께 부에데스 센티르로 쿠안도 아메스
a alguien más que tu.
아 알기엔 마스 께 두.

<마인어>

sebagai malaikat bagi seorang wanita,
스바가이 말라이캇 바기 스오랑 와니따,

kamu tidak tahu menjaga cinta.
까무 띠닥 따후 문자가 쥘따.
cinta ini bisa mengalahkan kesusahan dan kanker
쥘따 이니 비사 멩알라칸 께수샤한 단 칸꺼르
kamu tidak tahu kehilangan sungguh
까무 띠닥 따후 께힐랑안 승구
karena itu ketika kamu merasa sayang yang lain
까레나 이두 께띠까 까무 머라사 사양 양 라인
daripada kamu sendiri.
다리빠다 까무 순디리.

<헝가리어>

Nem tudod milyen, ha te vagy az ő anygala.
넌 투도르 미엔, 허 데 버지 어즈 웨 언질러.
Ez a szerelem legyőzi bármilyen nehézséget,
에즈 어 쉐렐렘 레웨지 바르미엔 네헝쉬겟트,
a rákot is.
어 락코트 이슈.
És elveszíteni valakit.
이쉬 엘베씨떼니 벨러깃.
Ezt csak akkor érzed, ha valakit önmagadnál
에스트 척 어코르 이르제드, 허 벨러깃 웬머거르날
is jobban szeretsz.
이쉬 올벤 쉐레츠.



부영이 통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아시아_파키스탄
탈레반, 자살폭탄테러 일으켜



이번 달 9일(수) 파키스탄 북서부의 한 장례식장에서 탈레반세력이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켜 37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테러는 최근 일어났던 이슬람 무장 세력의 공격에 이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테러는 미국의 지지를 받는 파키스탄 정부를 해치려던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장례식은 파키스탄 북서쪽 페샤와르의 아데자이 마을에서 진행 중이었으며 친 정부 민병관 사령 부인의 조문객들이 참석한 상태였다.

공무원들과 생존자들에 따르면, 테러범은 조문객들이 기도를 준비하는 틈을 타 조문객으로 위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 메호무드 사는 “사람들이 기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목도리를 두른 소년이 돌진했다. 그는 가까이 오자마자 자신의 몸을 폭탄으로 날려버렸다”고 증언했다. 한편 알 카에다와 관련 있는 탈레반 무장 세력은 최근 몇 년 간 파키스탄에 수많은 공격을 가해왔다. 특히 공격이 아프가니스탄의 북서쪽 국경지역에서 빈번하며 파키스탄 군대가 폭동을 진압하고 있다.

2 아시아_일본
강진 발생으로 쓰나미 경보 울려



일본 북동부에서 이번 달 9일(수)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45분경 도쿄에서 북쪽으로 300여 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오에는 높이 50cm의 쓰나미가 북동부 해안에 밀려올 것으로 예상됐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이와테와 미야기(宮城), 후쿠시마(福島), 아오모리(靑森)현 등이다.

또한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이와테(岩手)지방 북부에서 진도 5의 지진이 발생했고 도호쿠 지방에서도 진도 3~5가량의 지진이 관측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쿄 중심부에서도 약 5분간 고층 빌딩이 흔들리는 등 진동이 발생했다. 다행히 이로 인한 사

상자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한편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빈번한 나라 중의 하나인 일본은 지난 달 27일(일)에도 규모 5.2 강도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3 유럽_아일랜드
안다 케니, 새 정부 총리로 출범



중도 우파인 통일아일랜드당 앤다 케니(59) 대표가 이번 달 9일(수) 아일랜드의 새 총리로 선출됐다. 케니 신임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실시된 투표에서 166명의 의원 중 117명의 찬성을 얻었다. 그는 구 제금용 조건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일랜드를 암흑의 시간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아일랜드당은 지난 달 25일 실시된 총선에서 전체 166석 중 76석을 차지해 집권당인 공화당을 누르고 제1당에 올랐다. 중도 우파인 통일아일랜드당은 과반수에 못 미치자 중도 좌파이며 37석을 확보한 노동당 협상을 거쳐 이날 연립정부를 출범시켰다. 통일아일랜드당은 내각 각료 중 10자리를 차지했으며 노동당은 5자리를 맡았다. 이날 출범한 연립정부는 지난 해 말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했던 850억 유로 구제 금융과 관련해 이 자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할 계획이다.

4 아메리카_멕시코
깡단 위협에 여성 경찰서장 잠적

멕시코 북부 소도시 프라세디스의 20대 여성 경찰서장 마리솔 바예스 가르시아가 깡단의 살해 위협을 받은 뒤 미국 망명을 신청한 것이 드러났다. 가르시아는 지난 해 10월 프라세디스의 서장직을 맡아 마약 폭력에 찢든 멕시코 북부 도시를 평정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가 있다. 이에 당시 멕시코 언론은 가르시아를 ‘멕시코에서 가장 용감한 여성’이라며 찬사했다.

그러나 가르시아는 지난 주 깡단의 살해 위협을 받은 뒤 잠적하여 현재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인근의 장소에 머물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르시아가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멕시코 마약 조직의 위세가 공권력을 압도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프라세디스 인근 대도시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는 지난해에만 3천여 명이 마약과 관련된 폭력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 아시아_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총재 돌연 사퇴 당해



빈곤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의 창시자로서 세계적으로 빈민퇴치운동을 펼쳐 온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가 총재직에서 퇴임을 당했다. 이번 달 9일(수)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은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가 총재직에서 퇴임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그라민은행 이사회의 의결권 중 25%를 가진 방글라데시 정부가 유누스 총재가 정년 연령인 60세를 넘겨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근 사퇴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은 “현재 70세인 유누스가 총재로서 활동할 합법적인 권한이 없다”면서 “이는 그라민은행이 이 은행의 정년연령인 60세를 넘은 유누스를 재임명하는 허가를 중앙은행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유누스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모임인 ‘그라민의 친구들’(Friends of Grameen)은 이 판결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6 유럽_스페인
회귀 상어 어업 중 발견되



지난 1일 스페인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폰테베르드라 해역에서 어업 중이던 어선의 그물에 회귀한 모습의 어류가 걸려 올라와 화제가 되었다. 확인결과 이 어류는 500m 이하의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고블린 상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상어는 전 세계에 100마리 이하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인간에게 목격된 적은 손에 꼽을 만큼 드물다.

이번에 발견된 상어는 몸길이 1.6m의 수컷이며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새끼인 것으로 추정됐다. 고블린 상어는 다 자랄 경우 4m 길이에 달한다고 한다. 잡힌 상어는 스페인 ‘가르시아 생물연구소’로 옮겨져 연구에 쓰일 예정이다. 고블린 상어는 중생대 지층에서도 그 화석이 발견돼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린다.

아홉 번의 아프리카 여행



권명식
아프리카학부 교수

1979년 10월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은 이래 나는 금년 초까지 도합 아홉 차례의 아프리카 여행을 했다. 때 여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프리카 대륙의 변화에 기인된 것이겠으나, 내 자신의 변화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지도 모른다. 케냐 나이로비대학과의 몇 차례에 걸친 서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장이 없자, 나는 직접 현지 대학과 풍토를 체험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야말로 저돌적으로 돌진해갔다. 70년대 말 나이로비시의 모습은 낭만적이고 동시에 이국적인 것이었다. ‘나 홀로 여행’은 모험적 성격을 띤지 하지만 무한한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주기 때문에 여행 전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더욱이 이국에서 마주하는 풍광과 사람들은 나의 세계와 너무 달랐는데 나는 극한적으로 그것을 향유했던 것 같다. 몸바사로의 야간열차와 짧은 해안 체류도 아쉽기는 했지만 내 인생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다.

아프리카 여행은 쉽게 도모하기 어려웠다. 비용과 숙소, 용건과 체류 일정 등이 적절히 맞아 떨어져야 했다. 두 번째 여행은 80년대 초에 이루어졌던 것 같다. 우리 과 현자인 강사 집에 머물렀다. 부루부루 에스테이트는 나이로비 시 동부 외곽에 위치

해 있었다. 당시 예시비 선생은 나이로비 이곳 저 곳으로 나를 안내했다. 빈부와 인종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현실을 목도했다. 무타이가 부촌과 마테레벨리의 빈민가, 백인, 인도인 그리고 다양한 부족 배경의 현지 아프리카인들... 그들에 대한 공부에도 불구하고 나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로 마음의 깊은 충격을 받았다. 나의 공부라는 것이 이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국제 아프리카 언어 학자 대회가 열려 그 모임에 합류했다. 아프리카 언어구조에 대한 학자들의 발표내용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듯 했는데, 그 같은 연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더 많은 세월을 필요로 했다.

그 다음 여행은 학술 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은 여행이었다. 나이로비, 몸바사로 대표되는 케냐를 벗어나 다레살렘과 잔지바르 섬이 있는 탄자니아로 진출했다. 스와힐리 언어와 문명의 중심지여서 나에게서는 성지순례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개척자적으로 스와힐리어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함께 향유할 집단은 거의 없어서 홀로 외로운 탐구의 길을 걸어야 했다. 이런 것들이 밀거름이 되어 맺어질 수 있는 과일은 과연 무엇일까? 세월이 가면 언젠가 한국인들의 동-아프리카 관련 지식이 풍성해질 시기가 오겠지! 먼 훗날을 어렵듯이 생각해 본다. 남아프리카에서 공부하는 제자들의 연고로 요하네스버그와 프리토리아, 그리고 포체프스트롬을 잠깐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79년 첫 여행과는 여러 가지로 요행 양상이 달라져 있었다. 남아프리카가 안고 있는 인종과 사회 경제적 차별, 젠더 문제들이 어렵듯이 다가왔다. 현대화 물결을 타고 투어리즘 문화가 화려하게 그 위를 뒤덮고 있

었다. 2005년 7월 6년 만에 나는 다시 성곡재단의 지원을 받아 네 번째 아프리카 여행을 했다. 케이프타운에서 나미비아로 나아갔는데 핵심은 코이산어 연구를 위한 현지 조사였다. 아주 먼 지역에 오게 된 나는 아프리카언어를 쓰는 혼혈 여성과 일부 일정을 동행했다. 쿿시 소설의 배경인 케이프타운, 나마 호텐트의 땅인 나마쿠아 랜드, 그리고 협곡 사이에 흩어져 살았던 칼라하리 산(San) 인들의 존재 환경이 내 시야 안으로 들어 왔다. 모든 것이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었다.

2007년 7월에 있었던 아학연수단 인솔 차 행했던 여행에서 나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지역으로 더욱 깊이 들어갔다. 잔지바르 섬의 능구위 지역, 킬리만자로 지역 인근 마사이 지역, 그리고 케냐의 라무섬이 그것인데,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지식의 지평이 넓어질 때마다 하염없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말라리아와 설사 등 풍토병에 대한 염려와 예방약으로부터 야기되는 후유증으로 예기치 않은 순간엔 말 할 수 없는 심리적 위기감을 느끼곤 했다. 아루샤의 임팔라 호텔에서부터 발병하기 시작한 말라리아 증세는 며칠간 나를 거의 패닉상태로 내몰았다. 이후 7차, 8차 9차 여행들은 또 다른 미지의 영역으로의 여행이었다.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코이산인인 산다웨-핫자지역, 그리고 우삼바라의 음부구 마이지역, 마지막으로 켈바섬, 여기서서는 나의 학문적 연구와 긴밀히 연결된다. 30년 전 어렵뿔한 현지 조사 연구의 꿈이 서서히 구체화되어가고 있었다. 8차 남아프리카 꾸이줄루 나탈대학 방문과 9차 나이로비대학 강연 여행은 지적인 만남으로 아프리카 지성과의 연결로 나타났다.

영화 읽어주는 기자

기자 고정칼럼

김혜정 기자

편안함에 중독된 환자로 가득한 지구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과학 기술의 발전은 더 없이 매혹적이다. 편안함의 매력에 도취된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맹목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를 외면하곤 한다. 청소, 운전과 같은 귀찮은 일을 대신할 로봇이 발명된 것에 만족하면서 이를 통해 잃게 될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의식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말 편리함과 효율성으로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

영화 ‘월E’는 과학기술이 주는 편

안함에 도취된 인간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그려 낸다. 영화 속의 사람들은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마구 버려도 청소 로봇 ‘월E’가 깨끗하게 정리해줄 것을 알기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또한 바퀴벌레와 같은 작은 생명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과학 로봇 ‘월E’가 취하는 행동보다도 모질다. 점점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이 흐려지는 사람들. 결국 지구는 쓰레기하치장으로 전락해버렸지만 사람들은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을 잃은 지 오

래다. 이렇게 지구환경 오염의 가해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을 망각한 사람들은 끝내 더러워진 지구를 떠나고 만다.

상충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편안하고자 하는 욕구와 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 둘 중 후자를 너무 쉽게 버리는 인간의 모습이 영화 속의 문제인 것만 같지는 않다. 얼마 전 우리가 구제역에 걸린 돼지를 살처분 한 사건.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옛 속담처럼 우리가 양심적 가축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외면한



채 맞볼 수 있는 달콤한 편안함이란 무가치한 것이다. 영화 ‘월E’를 거울로 삼아 비추어본 우리의 과거. 과학기술에 도취돼 편안함만을 추구하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진다.

흡산의 열린 성 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안녕 데이트 공작소

너는 ‘사랑’이라 부르고 나는 ‘폭력’이라 부른다

사례 : 대학생 김양은 얼마 전 남자친구로부터 욕설과 함께 뺨을 두 차례 맞았다. 이유는 바로 스킨십 거부로 인한 다툼. 남자친구와 2년 동안 교제 해 오면서 이번이 벌써 5번째다. 매번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지만 그때뿐이다. 이젠 사랑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폭력을 참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욕설 △무시와 비난의 말들 △집요한 전화나 문자 △성관계(임신, 동거, 낙태 등)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언어적, 정서적 폭력에서부터 △뺨을 때리고 △벽에 밀치고 △발로 차고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찌르고 △납치와 감금하는 신체적 폭력과 △집요한 성관계 요구 △강간 등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폭력을 아우르고 있다.

위 사례의 남자친구는 전형적인 폭력 가해자의 모습이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폭력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과 아직은 상대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내가 잘하면 상대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남자친구와 2년 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데이트 관계에서는 ‘폭력’과 ‘사랑’을 혼돈하게 된다. 상대방은 감시, 통제, 억압, 폭력 행위 등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폭력’을 ‘사랑’이라 말하는 것은 폭력을 정당화 하고 합리화 하는 것이다. 폭력은 사랑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휘두르는 것이다.

늦었지만 “더 이상 폭력을 참고 싶지 않다”는 여학생의 결정을 지지한다. 하루빨리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종결하기를 적극 권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헤어지기 원해도 보통의 폭력 가해자는 신체적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며 이후에는 스톱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물리적 증거가 없는 대부분의 경우 ‘폭력’으로 인지되기 어렵고 관련된 법이 없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도 종종 있다. ‘데이트’라는 관계가 명시된 사

례들은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성폭력으로 인식되지 않기도 한다.

이런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데이트 관계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은 감정 조절이 안 돼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고, 자기 생각이나 말만 옳다고 주장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 또 욕, 무시, 비난의 말들을 수시로 하고, 일반적으로 약속일정을 잡아 통보 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감시, 통제하고,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킨십이나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 이런 사람과 데이트 관계를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또 지금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의심될 경우 먼저 전문상담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기를 권장한다.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이 있는 경우는 병원 진료를 꼭 받고 핸드폰,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한 협박이나 위협이 있을 경우는 녹음, 녹취, 저장하여 경찰에 신고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그림 읽어주는 기자

기자 고정칼럼

서상아 기자

그것은 사랑이었네



-사갈〈도시위에서〉

어릴 적 누구나 한번쯤은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해봤을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오늘날이지만 여전히 창공을 유유히 가르는 한 마리 새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래서일까 그림속의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녀를 사랑하는 한 남자의 보호를 받으며 어딘가에 있을 에덴동산으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은 꿈, 그 자체다.

‘도시위에서’는 사갈이 벨라와 결혼한 직후 제작되었다. 그림에서는 연인에서 이제 그의 아내가 된 벨라와의 사랑이 넘쳐난다.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세련된 색채가 보는 이의 눈길을 끌고, 회색 배경 위로 아름다운 색들이 미묘한 변화를 이루며 생동감을 일으키고 있다. 웅기종기 모인 목조 건물, 대성당, 나무울타리가 잔잔히 펼쳐져 있는 사갈의 고향마을을 배경으로 부부는 싱그러운 초록색과 푸른 색 옷을 입고 희망을 그린다. 벨라를 뒤에서 감싸안으며 이끄는 사갈의 모습에서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더라도 그녀에 대한 애정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느낄 수 있다.

사실 이 그림은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제작되었다. 작품에 드러나는 무한한 따뜻함과 낙천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던 것이다. 고난과 격정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의 그림에서 보여주는 밝은 힘의 원동력은 사랑이었다. 그는 “우리네 인생에서 삶과 예술에 진정한 의미를 주는 단 하나의 색깔은 바로 사랑의 색이다”라고 말했다. 인스턴트 사랑의 시대, 당신만큼은 누군가에게 단 하나의 색깔이 되길 바라며.

“마르코스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내 얼굴을 물고리며 보면서

내가 보고 싶었다고 얘기하곤 했죠...

잠든 그 순간에도 나를 그리워했던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벨라 마르코스

동네 BOOK

김현정 | 어문·그분어 10

소년을 위로해줘

연우는 엄마와 단 둘이서 산다. 엄마는 매번 연우에게 잔소리를 듣는 철없는 엄마다. 하지만 엄마는 연우의 정신적 지주이다. 엄마의 애인인 재욱도 연우에게 힘을 주는 존재다. 이사 후, 연우는 체영이라는 소년을 만났고, 합합을 좋아하는 태수와도 만났다. 17살인 연우는 첫사랑의 설렘과 더불어 무언가를 잃는 아픔도 겪는다. 그는 이런 상황을 나름대로 받아들이나. 그리고 시간은 흐른다.

『소년을 위로해줘』는 성장소설이다. 하지만 억지 감동은 없다. 그냥 그들이 말하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가슴 깊숙이 와 닿는다. 우리가 보기 힘든 조금은 특별한 가정환경 속에서 연우는 지극히 정상적인 청소년기의 불만들과 걱정들을 고민하고 고민한다. 내가 불과 몇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남들이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걱정들이 내게는 정말 큰 걱정거리였을 때가 있었다. 그 때로부터 얼마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었던 그 사소한 고민들은 작은 웃음거리가 돼 있었다. 대신 또 다른 고민들이 생겼다. 17살의 고민과 19살의 고민과 20살의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그 고민들로 인해서 다들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같다.





why 라는 물음을 마음속에 새기자

꽃든 서클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지는 공통적인 마음가짐을 분석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그들은 일을 시작할 때 WHY-HOW-WHAT의 순서로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나 기업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다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이다.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애플사는 꽃든 서클의 원리를 따르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애플사의 사고 순서는 “우리는 기존의 현상에 도전하고 다르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WHY).”, “기존의 현상에 도전하기 위한 우리의 방식은 제품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HOW).”, “우리는 훌륭한 컴퓨터를 만듭니다(WHAT).”의 순으로 진행된다. 사람들은 기업이 만드는 제품보다 제품을 만드는 이유에 대한 신념을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에 애플사는 오늘날 성공한 기업으로 손꼽힐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WHAT을 먼저 생각해 왔다. 어려서는 단순히 멋있는 직업을 생각하고 그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수험생 시절에는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고 그 곳에 가기 위해 수능공부를 했다. 학보사에 들어오게 된 이유도 단순히 기자가 나의 장래희망이기 때문이었다. 솔직히 고백하면 나는 ‘왜’ 기자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학보사에 들어오게 됐다.

정기자가 되고 본격적으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제야 수습 기자 교육 기간에 언론관을 강조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내가 왜 기자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기자가 될 것인지에 관해 고민을 요구하는 내용의 언론관 교육은 “왜”라는 이유를 중요시하는 꽃든 서클의 원리에 가장 적합한 교육이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기자 생활을 계속한다면 나는 아무런 의미도 경험도 학보사에서 얻어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기자생활을 해나갈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로 훌륭한 기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왜라는 물음에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기자가 먼저 돼야 할 것이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일시 정지

가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난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책을 한 권 사러 서점에 가는 길에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의 가난은 어떨까? 매일 같이 만나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부유한가?

사진제공 김성현 (서양어·스페인어 09)

지난호를 말한다

홍예진 | 상경·국통 10

외대학보의 낮은 구독률 아쉬워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의 끝자락과 함께 개강을 맞았다. 방학 동안 학생들이 떠나 있었던 학교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함과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반가움이 평소에는 잘 잊지 않던 외대학보를 집어 들게 했다.

지난 935호에서는 등록금 동결에 관한 기사가 가장 인상 깊었다. 결과판 받아보고 좋아했던 등록금 동결이 정말 어렵게 이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등록금 동결을 둘러싼 학교 측과 학생 대표자 간의 입장 조율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좋았다. 등록금 심의 및 의결 기간 내내 함께하며 학생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 외대학보 기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강신청 장바구니에 대한 기사도 좋았다. 나 역시 이번 장바구니

니제도를 사용했지만 서버 과부하로 인해 수강신청을 성공하지 못했다. 막연하게 장바구니 제도에 대해 불만족스럽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장바구니 제도 첫 시행의 문제점과 앞으로 고쳐나갈 사항을 기사로 정리해 준 점이 매우 좋았다.

그런데 외대학보가 이렇게 좋은 학교 대내외적인 정보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읽히지 않는 것 같아 그 점이 안타깝다. 물론 강제적인 구독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좀 더 접근성이 있는 곳에 학보를 비치해두면 많은 학생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학생들도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우리를 둘러싼 이야기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홈페서(HUFS+professor)의 소리

이병도 | 글로벌캠퍼스 태국어통번역학과 교수

‘미소의 나라’ 태국



최근 아랍·중동 지역에 불고 있는 민주화의 열기는 △권위주의 정부 △부정부패 △경제·사회적 불평 등 △빈곤 등에 염증을 느낀 민중이 개혁을 외치는 민주화의 파도가 역사의 물결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에게 ‘미소의 나라’라고 알려진 태국에 수년 전부터 미소가 사라지고 있다. 탁실히 친나와 전 총리를 몰아낸 2006년 쿠데타 이전까지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정치가 안정된 나라에 속했다. 정권 교체가 잦긴 했지만 1992년 방

콕 민주화 시대 이후 헌정 중단 없이 문민정부의 집권이 계속 이어졌다. 정치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보다는 푸미폰 국왕의 권위에 힘입어 사회통합을 유지했다. 그러나 서민층에 초점을 맞춘 탁실히의 정책은 태국의 정치·사회구조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고, 사회통합을 분열시키는 씨앗이 됐다. 탁실히의 퇴진은 부정부패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기득권층과 도시 중산층의 반발이 있었다.

태국은 탁실히 등장하기 이전까지 왕실, 군부, 대기업, 그리고 이 세 집단의 지배를 받는 서민층 간에 불교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상호 배려와 조화에 의해 나름대로 사회 통합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탁실히 집권 이후 태국에는 새로운 정치적 역학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거 50여 년 동안 정치적으로 북중만을 강요당해 왔으며, 경제·사회 개발계획으로 인한 혜택과 이익의 대부분이 도시 중산층에게 돌아감으로써 철저히 소외당했던 농민·도시빈민층 등 하층계급이 정부의 현상유지 정책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수자원, 임산자원, 광물, 인력 등 농촌의 자원을 이용하여 도시민의 소득 향상에 지원함으로써 농민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 결과 최상위 부유층 10%와 최하위 빈곤층 10%의 소득 격차가 24배, 최상위 50위와 최하위 50위의 토지소유 격차가 약 30만 배에 이를 정도로 도시부유층과 하층계급 간의 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심해졌다.

서민층은 탁실히를 축출한 2006년 쿠데타를 자신들에 대한 지배층의

복수로 인식한다. 탁실히가 포퓰리즘적인 선심행정을 남발했다고 비판받고 있지만 역대 정치 지도자 중 탁실히 만이 유일하게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인지도자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인터넷 시대의 새 기술과 새 세대가 민주화 과정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대에서 더 이상 태국의 하층계급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없고 북중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태국사회의 변화에 맞춰 태국의 정치체제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해 오랫동안 기득권을 향유해 왔던 전통 엘리트들의 의식과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태국사회의 분열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 사라져 가고 있는 태국인들의 미소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홈스텝(HUFS+staff)의 소리

김태동 | 글로벌캠퍼스 생협 기획홍보팀

생협을 만나보셨나요?

영과 학내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타 대학 생협들의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학내복지시설을 관리,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을 장학기금, 학교발전기금, 시설재투자 등을 위한 시설적립금 등의 다양한 기금을 조성하여 학교발전과 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지급 △복지매장 할인 △생협복지장 학생선발 △조합원휴양시설이용 △생산지견학 △농촌체험 △조합원한마당 △문화유적답사 △추석 귀향버스 등의 조합원과 학내구성원들을 위한 편의와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장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학내구성원들에게 다시 환원시키고 있는 것이죠. 즉, 학내매장을 이용하는 만큼 다시 조합원들과 학내구성원들에게 혜택이 되돌아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대학에 생협이 존재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협의 중심에는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원은 학내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가 있으며, 출자금을 출자하여 조합원이 되는 순간부터 생협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돼 생협의 정책결정에 본인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협은 함께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조합원만의 좀 더 다른 혜택을 제공합니다.

생협은 조합원들과 함께 학교발전과 학내 모든 구성원들의 즐거운 대학생활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생협의 근본적 취지이며, 생협만이 갖는 특별한 가치이자 20여년동안 우리학교에 생협이 뿌리를 굳건히 다질 수

있었던 근거라 생각을 합니다. 생협은 학내구성원들의 입학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내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학교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매점, 서점, 문구점 등을 이용하면서 매일매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생협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만남이란 늘 설렘과 기대, 즐거움과 환한 웃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협의 직원들 역시 매일같이 학내구성원들의 만남을 위해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내구성원들의 환한 미소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생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생협은 언제나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만나러 오시길 바랍니다.

네모난 지구 ②

채송아 | 국제지역대학원

<고정기고>

북 아프리카 ‘재스민 바람’에 세계경제까지 ‘흔들’

지난 8일(화)부터 우리정부는 유류업소들, 아파트 외등 등 홍보 및 미화물 목적으로 한 전등기구의 12시 이후 강제소등을 지시했다. 이는 원유가격 폭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는 원유가격이 5일 연속 1배럴 당 100달러 이하의 가격을 유지했을 때 제재가 풀리게 된다.

연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중동지역의 재스민 혁명의 바람이 북 아프리카로부터 몇 천마일 이상 떨어진 한국의 정부정책에 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이 민주화의 바람이 중동의 산유국으로 퍼져나갔을 때, 우리나라 뿐 만아니라 세계경제가 입을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주화 혁명시기에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 폭은 리비아의 것 보다는 크지 않았다.

리비아의 하루 석유 생산량은 165만 배럴로 이는 전체 원유생산량의 2%이고, 튀니지와 이집트 역시 원유생산량이 두 나라를 합치더라도 세계원유생산량의 약 1%가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아프리카에 부는 민주화 혁명바람에 국제유가가 1배럴 당 100달러 이상으로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는 재스민 혁명이 중동의 최대 원유생산지인 이라크에 반도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 때문이다.

원유 가격의 상승은 지난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 이후 회복세를 걷기 시작한 세계경제가 또 다시 침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이어졌다. 이는 각국의 증권시장에 일제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명 공포지수(fear index)로 불리는 각국 증권시장의 변동성지수는 2월 22일 카디프의 성명 발표이후 전날 대비 적게는

8%(유럽, 한국) 크게는 26.6%(미국)까지 오르기도 했다. 원유가격의 상승은 원자재가격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엔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도미노현상으로 각국의 경제당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북아프리카의 민주주의를 달성하는데 있어 해당 국가는 해당 국가대로 경제적 타격을 입게되고, 또한 그와 관련된 수많은 국가들이 입을 해를 어떻게 바라봐야하는 것일까?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상황을 두고 우리는 딜레마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이집트의 경우 반정부 시위가 격화된 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이집트 증시는 거래를 중단했고, 지난 6일(일) 재개장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못

했다. 현재 이집트의 증시수익률은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집트에 투자한 수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막대하며, 당연히 이집트 경제 또한 큰 손해를 입고 있다. 이집트의 정치적 민주화는 이룩했지만, 이집트 시장경제는 앞으로 몇 년간 고통 받아야 할지 모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북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있는 정치적 변화와 우리나라의 전등기구 강제소등의 상관관계를 생각해보며 실현되어야할 가치와 현실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공포지수: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가 S&P500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변동성 지수인 VIX(Volatility Index)를 일컫는다.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질수록 지수가 상승해 ‘공포지수’라고 불린다.

흡산의 소리

흡산(HUFSan)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an의 준말로 외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시작과 끝남의 경계에서 나를 바라보다

2학년을 맞이한 나에게 신입생들의 입학식이라든가 새내기 새로 배움터는 새로운 감회일 수밖에 없다. 처음으로 선배가 되는 시점이 왔고 바로 이 미묘한 시간의 흐름이 나를 괜한 부담감에 가둬두게 했다.

2학년을 맞이한 나에게 선배님들의 졸업식이라든가 학위 수여식도 새로운 감회일 수밖에 없다. 처음으로 후배로서 선배의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가 왔고 바로 이 엄숙함은 나에게 괜한 불안감으로 엄습했다.

이러한 나는 시작과 끝남에 서있는 묘한 느낌이었다.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는 시간이란 개념이지만 몸과 마음은 그 경계를 느끼는 것 같다. 확실히 내가 신입생이었던 작년보다는 유유부단함이 한 풀 꺾였다. 막연히 불타던 열정은 이제 방향을 잡은 듯하다. 돌연 올해 선배님들의 졸업을 보면서 여유로움은 한 층 낮아졌다. 기대감에 머물렀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은 긴장감에 게 역전 당한 듯하다.

시간의 흐름 보다 무서운 것은 주변의 변화였다. 지루한 사색을 좀 해보자면, 우리가 흔히 인위적으로 겪어보고 싶다고 하는 ‘경험’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자연스레 흘러가는 주위의 변화 속에서도 충분히 깨달을 것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당장 이러한 사실도 내 자신을 살펴보는 성찰이 선행되기 전까진 몰랐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능동적 사고가 아니고서는 소용이 없을 것이다.

결국 내가 느낀 것은 나를 제외한 주위의 갑작스런 변화, 그로 인한 깨달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움직임인 것 같다. 꿈을 향해 달리고 싶은 나에게 후배들은 새로운 시작을 알렸고 동시에 선배들은 종결이 있음을 알렸다. 여기서 내가 느낀 것은 제법 달릴 모습을 갖춘 나 자신과 기폭제로 작용할 타인의 모습들이었다.

오늘도 바람이 스치운다.

10㎡에 갇힌 20대

며칠 전 ‘생활고에 시달리는 20대 대학생 자살 속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나와 같은 20대 대학생의 자살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진 참나에, 문득 ‘속출’이라는 단어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취업 준비생들이 밀집 주거하는 노량진에서 같은 날에만 2명이 자살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는 사회 문제화가 되어버린 대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접할 수 있었다. 무엇이 ‘인생의 황금기’라는 20대 청춘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게 했는지 생각해보다가, 그것이 경제적 부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다.

제한된 기숙사의 정원 때문에, 보통의 대학생들은 학업이나 취업준비를 위하여 주로 대학가 고시원을 주거공간으로 택한다.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고시원 중 1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12㎡이하가 이하의 방이 전체의 71.9%나 된다고 한다. 지속 되는 물가폭등으로 인하여, 월세는 평균32만원까지(경기도 지역 평균)올라가게 되었고, 최근 전세 값 파동으로 인하여 직장인들까지 대학가로 물리는 바람에 대학생들의 보금자리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20대 청춘들을 평균 10㎡의 좁은 방으로 몰아넣고, 학업 대신 아르바이트를 택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시점에, 학생을 보호해야 할 대학은 오히려 ‘교육의 질 향상’을 핑계로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20대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 위의 사례가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적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대학생 자살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사회 문제이며,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는 공동의 숙제이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부의 제도 개선과, 학교의 학생 중심의 등록금 정책, 무엇보다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손수현 (서양어·스페인어 10)

원양재 (통번역·아랍어 10)

사설

글로벌리티와 맞춤형 외교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시작된 중동의 시민 봉기는 국제사회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가판대를 빼앗긴 노점상 청년의 분신장면이 휴대폰에 찍혀 동영상으로 유포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튀니지의 한 소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이 현재 중동 전역으로 확산한 상황이다. 두 정권이 무너졌고, 내전 상태에 빠진 나라도 있다. 중동뿐만이 아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이탈리아 등에서도 시위가 발생했고, 중국에서도 여러 차례 반정부 시위 기도가 있었다. 유가는 오르고 세계 증시는 요동치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틀의 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혁명은 민족적 혹은 이념적 지도자가 있고, 오랜 동안 혁명역량이 축적된 이후 분출했다. 하지만 최근 중동에서 발생하는 혁명은 지도자가 없다. 페이스북, 트위터, 휴대폰 등에 의해 전파된 메시지에 의해 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과거 권력이 장악해 왔던 정보소통수단이 이제 개인의 손바닥으로 옮겨진 것이다.

문제는 이 새로운 틀의 혁명이 중동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 중국을 포함한 다른 제3세계 권위주의체제도 이 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전방위외교, 혹은 복합외교의 필요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권력이 다원화하면서 정부 간의 외교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시대는 지났다. 국가별 맞춤형 외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세력이 등장할 것이다. 정당은 물론 시민사회, 이익단체 등과의 교감과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외교아카데미설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획일화된 인재양성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별, 국가별 전문인력을 길러내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현지어도 모르는 외교관이 현지 공관에서 일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제 지역별 그리고 분야별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뽑고 훈련시켜야 한다.

점입가경 새터 문화, 변화가 시급하다

신학기를 맞아 대학에서는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막나가는 환영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람을 반갑게 맞이한다는 의미의 신입생 환영회는 학생들 간에 인사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행사이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입생들과 기존 재학생들 간의 술을 강권하는 잘못된 음주문화로 매년 신입생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5년 동안 음주사고로 숨진 학생은 10여명이 넘는다.

신입생 환영회가 이처럼 도를 넘는 이유를 일부 전문가들은 통제가 미약한 대학 측의 안일한 태도에서 찾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교육체계에서 자유로움을 찾은 신입생들은 아직 대학의 새로운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선배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것이 그 학교, 그 학과의 전통인양 따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배와 친구사이가 남들보다 더 멀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인간관계의 형성의 경쟁심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몇몇 대학은 음주 없는 학교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술 없는 오리엔테이션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으며 신입생환영회를 단체 봉사활동으로 의미 있게 대체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음주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교내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잘못된 사고가 반복된다면 법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졸업식 뒤풀이’에 이어 ‘신입생 환영회’까지 빼돌려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문제점 보면서 과연 법적인 조치만이 최선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점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교, 학생과 학부모,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보를 꼼꼼히 읽으면 답이 보인다”

십자말풀이

	①		⑤		⑥			
②		③			⑦	⑧		
	④							
								⑫
⑨		⑩						
		⑪			⑬			

- 서울배움터 국제학사 401호 담당자 : 신혜지 기자 (010-9555-5951)
- 용인배움터 학생회관 212호 담당자 : 남궁현주 기자 (010-4109-1935)

■ 정답 십자말 풀이를 이름과 연락처와 함께 학보사로 가져오시면 추첨을 통해 3명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단, 하나라도 틀릴 경우 상품을 드리지 않습니다.

외대학보

창 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 철 편집인 겸 주간 서정민 편집장 이혜영

제 작 ㈜스포츠허스윌퍼낸비 인 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02)2173-2505 (F)

(용인)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 89

외대학보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외대학보는 언제나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및 사회·문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학내 구성원이라면 주저 없이 외대학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독자 기고란

- 홈페이지 소리(교원) ·홀스텝의 소리(직원) ·흡산의 소리(학생)
- 지난호를 말하다 ·동네book

◆기사 제보 및 기고 주실 곳

- 전자우편 hufspress@hanmail.net
- 연락처 (서울) 02-2173-2504 (용인) 031-330-4112
- 학생기자실 (서울) 신학생회관 401호 (용인) 학생회관 212호
- 편집장 이혜영 (통번역·독일어 08) 81hufspress@hufs.ac.kr
- 보내주시 기사제보는 신문사의 편집 계획에 따라 실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에게도 동물답게 살 권리가 있다! '동물복지'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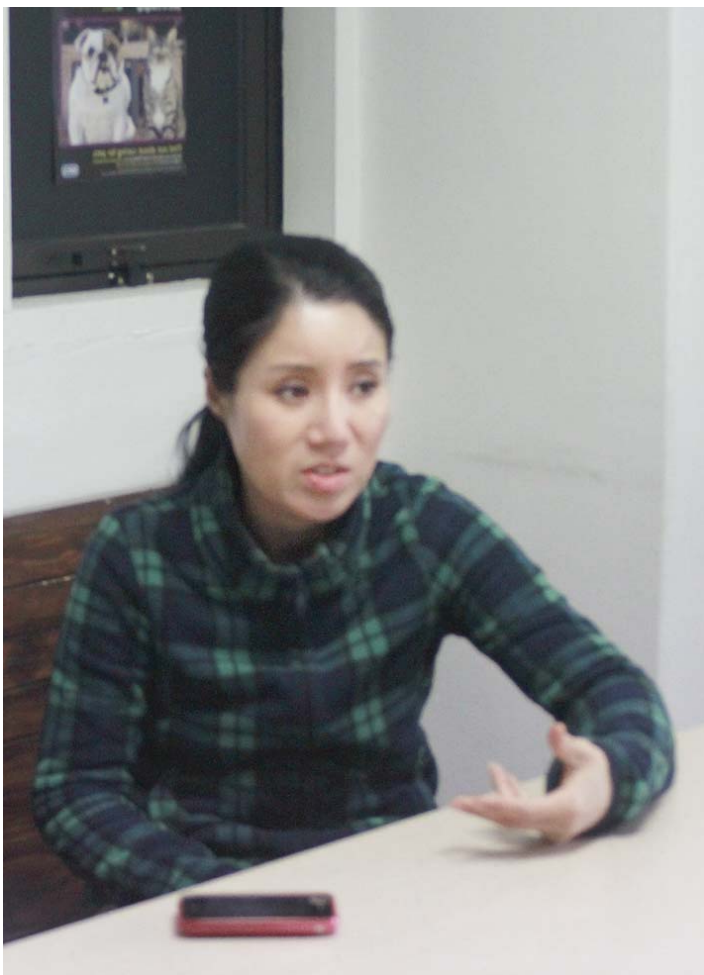


사진 김혜정 기자



▲ 암돼지는 평생 60cm의 우리안에서 사육된다.

에게서 발생하는 구제역, 조류독감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합니다. 자연의 모든 개체는 본연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개체가 본연의 습성대로 자연의 이치에 맞게 유지돼야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물복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지금의 사육 환경이 도덕적으로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비록 사람이 동물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라면 고통을 덜 주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Q.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여건상 동물복지가 가능할 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A.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금의 식습관, 식문화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싸고', '많이' 먹기 위해선 지금의 밀집사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구에는 과거에 비해 어마어마한 수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구가 고기를 먹어야 한다면 동물들은 그 수요만큼 길러져야 하고 이 동물을 기르기 위해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기를 수 있는 땅에 동물들이 먹는 '곡물'을 길러야 하는 거죠. 여기서 기아문제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식위주의 식습관을 고치고 소박한 밥상을 추구해야만 앞서 말했던 동물 문제들도 발생하지 않고 동물의 문제로 인해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건 사람들이 고기를 덜 먹는 식습관으로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Q. 요즘엔 반려동물(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요?

A. 사람들이 순종 혈통에, 작고, 어리고, 예쁜 동물들만 추구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종을 생산하기 위한 번식 농장들이 성행하고, 그런 번식농장들이 과도한 수의 동물을 생산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려동물을 생산하면서 반려동물이 마치 공장의 생산품처럼 나오고 또 너무 과다한 수가 나오다 보니 잉여동물들이 헐값에 아무나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학대나 유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반려동물들을 대형 마트에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이 물건처럼 마트에 진열돼 다뤄졌을 때 그 동물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르기기도 합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판매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좀 더 동물들을 배려한 공간에서 사는 사람도 건강한 동물들을 골라서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형 마트 같은 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 시끄럽고 24시간동안 불이 켜져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있는 동물들이 물건처럼 다뤄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요?

A. 우리나라는 동물 복지적인 것들을 고려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겨우 동물 복지에 대한 개념만 등장했을 뿐 동물 복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농장동물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동물 보호법도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문제만 살짝 다루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아주 범위 위가 좁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법은 선언적 의미의 동물 보호법이지 실질적으로 동물들이 구호 될 수 있는 법체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동물 복지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A. 정부 차원에서는 형식적인 동물 보호법을 만들어낼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침들을 마련하거나 실현하려는 노력들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나라도 동물 보호법이 있고 동물 권익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알려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Q. 그럼 현장에서 일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A. 그런 공무원들, 담당자들의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인식 부족이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들을 계속해서 보호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은 점점 산더미처럼 불어나는데 인력이 부족하거나 많은 비용이 발생했을 때 시민단체로써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 이런 어려움을 더 심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Q.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지구에는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사는 다른 동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동물들과 평화롭고 자연스럽게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동물들에게 어떤 것들을 배려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고민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동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인간에게도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을 기르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동물들을 책임 있게 기르기 위한 것들, 그리고 동물 사랑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동물사랑실천협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권익향상 활동에 대해 엉뚱한 반론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당신들은 채식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신들은 어떠한 가족제품도 쓰지 않느냐" 등 편견어린 시선들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아끼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전기를 쓰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동물 운동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권익활동은 '인간으로써 동물에게 최소한의 것들은 배려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동물 운동을 한다고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 운동이라고 해서 동물의 권익만 대변한다고 보지 말고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유진 기자 &yujin@hufs.ac.kr

지난 달 23일(수)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제작한 한 동영상 기사회견장에서 공개됐다. 바로 1450마리의 돼지들이 살처분되는 동영상이었다.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이라는 비참한 죽음을 맞았던 수많은 소와 돼지들. 하지만 그들에게 산다는 건 어쩌면 더한 고통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암돼지에게 생전 허용된 공간은 단 60cm. 그 좁은 공간에서 허용된 일이라고는 앉고 서는 것뿐이었다. 이는 돼지 뿐만 아니라 모든 농장동물의 이야기다. 짐승이라는 이유로 짐승만도 못한 환경에서 사는 동물들,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여기 동물들을 대신해 '동물 복지'를 외치는 한 단체가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편집자주

Q.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 인가요?

A. 다양한 동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주된 활동으로는 동물보호법 개정운동, 캠페인, 교육, 실태조사, 학대고발, 동물구호활동, 동물보호소 운영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Q. 최근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면서 많은 소와 돼지들의 살처분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라는 개념도 함께 등장했는데요. 정확히 동물복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동물복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물권'이 있습니다. 동물권은 동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이 이용할 수 없다. 즉, 동물은 동물 고유의 습성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동물권의 개념입니다. '동물복지'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동물의 습성은 고려해서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장동물의 경우 고통을 덜 주고 최소한의 습성을 유지시켜주는 사육 환경을 보장하자는 것이 동물복지의 개념입니다.

Q. 동물복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동물복지는 꼭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환경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농장동물을 예로 들면 동물은 뼈와 근육으로 이뤄져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밀집 사육, 공장식 축산의 방법은 동물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놓고 호르몬제,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동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동물

